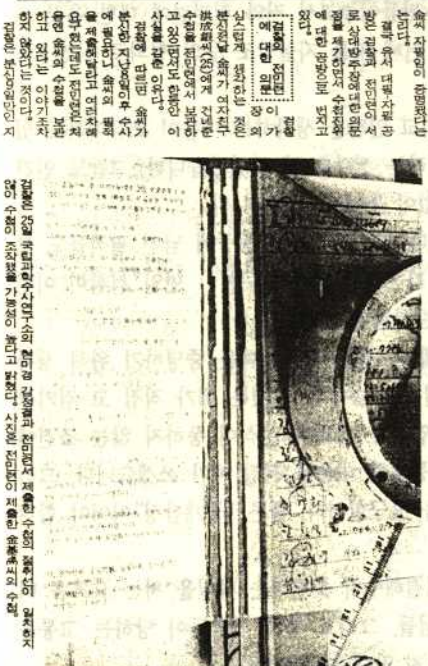


# 「金基高수첩」 진짜나 가짜나

## 검찰-권민권 공방...황이는 의혹

### “조작 안했으면 왜 한동안 숨겼나” 검찰 “姜씨-洪양대질 피하느니 이유원가” 권민권



【서울 27일 특파원 특보】 검찰과 권민권 변호인단이 김기철 수첩의 진위 여부를 놓고 맞붙고 있다. 검찰은 수첩이 조작된 것이라며 한동안 변호사를 압박하고 있다. 권민권 변호인단은 수첩이 김기철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수첩이 김기철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민권 변호인단은 수첩이 김기철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동안 변호사는 수첩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민권 변호인단은 수첩이 김기철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첩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검찰은 한동안 변호사를 압박하고 있다. 권민권 변호인단은 수첩이 김기철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첩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검찰은 한동안 변호사를 압박하고 있다. 권민권 변호인단은 수첩이 김기철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自發的 자살로 보기에 어렵다

## 金基高씨 불행매형 金洪陽씨서

부친자살한 전민권 사회 부친 金基高씨의 자살은 자살로 보기에 어렵다. 권민권 변호인단은 수첩이 김기철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친자살한 전민권 사회 부친 金基高씨의 자살은 자살로 보기에 어렵다. 권민권 변호인단은 수첩이 김기철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친자살한 전민권 사회 부친 金基高씨의 자살은 자살로 보기에 어렵다. 권민권 변호인단은 수첩이 김기철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친자살한 전민권 사회 부친 金基高씨의 자살은 자살로 보기에 어렵다. 권민권 변호인단은 수첩이 김기철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친자살한 전민권 사회 부친 金基高씨의 자살은 자살로 보기에 어렵다. 권민권 변호인단은 수첩이 김기철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누가遺書를 흘림체로 쓰겠나” 분신10일전 결혼의사도 밝혀

【서울 27일 특파원 특보】 권민권 변호인단이 김기철 수첩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은 수첩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민권 변호인단은 수첩이 김기철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수첩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민권 변호인단은 수첩이 김기철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수첩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민권 변호인단은 수첩이 김기철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수첩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민권 변호인단은 수첩이 김기철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수첩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洪銀濤기자>

■자료 가-3-14

저는 그간 검찰이 지난 18일 저를 유서대필 용의자로 지목하면서 시작된 소위 '유서대필공방'에 안내심을 갖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면서 진실을 밝히려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이고 안정적인 장소에서라면 언제든,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수시로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분신배후에 대한 가장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서 저와 전민련에 대한 온갖 왜곡과 기만선전을 통해 진실을 왜곡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를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검찰이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인간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러한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첩도 조작이다. 제가 교도소에서 쓴 편지도 조작이다. 고인이 과거활동중에 남긴 필적들도 모두 내가 썼다. 아마도 김기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만일 검찰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는 아마도 무협지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동안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너무 명확하기에 저는 제 자신이 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생각을 하면서도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것 같아 망설여오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고 김기설 동지의 유서를 공개적 장소에서 써서 이를 감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유서와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게 이 필체를 유서와 같은 지 공개감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공개감정"이어야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요즈음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저의 동료, 선배님들, 그리고 특히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저는 피눈물이 나도록 분노가 솟구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1년 5월 27일

명동성당에서 강 기 훈

■자료 가-3-15 강기훈이 써보인 김기설의 유서내용

노태우 정권은 라틴아입니다  
민중은 레체아입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만을 안겨주는  
지금 정권은 꼭 라틴아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죽음과 아픔을  
안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모두 해방대의 죄부대로  
항의만을 앞세우는 노태우 정권을 향해  
전배정들 선봉으로 최후의 투쟁을 시작  
행동을 위해 모두가 레체아입니다

김 기 설

1991 - 5. 27 오전 10시 30분

명동성당에서 강기훈 씀.

■자료 가-3-16

왜곡날조에 대한 정의의 투쟁을 선언한다

검찰은 적반하장격인 영장발부를 즉각 취소하라!  
검찰은 여론조작과 신빙성이 없는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하여 고 김기설동지의 유서를 강기훈씨가 대필했다는 황당무계한 혐의를 조작하고 시비를 걸어왔지만, 고인이 생전에 남긴 필적과 이를 증거하는 많은 증인들에 의해 이미 검찰수사의 허구성과 과·수·연의 감정의 조작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검찰은 적반하장격으로 강기훈씨에게 수첩조작혐의를 들춰워 자살방조라는 죄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법리적 근거도 없이 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미 그간의 필적논쟁에서 충분히 드러났듯이 진실은 너무도 명백하다.

고 김기설동지의 유서는 송의여전학생들이 증언하고 제출한 메모의 필적, 터사랑청년하우회 창립대회 참석자들의 증언과 방명록의 서명, 전교조 원주지부 사무실 개소식 방명록, 성남민청련 업무일지 등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고인의 흘림체 필적임이 명백하다. 또 검찰 스스로가 인정한 고인의 정자체 필적은 우리가 발견한 90년 11월 작성의 이력서, 성남 민청련 업무일지의 정자체 필적과 동일함으로 유서가 고인의 필적임이 명백하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에 의해서도 인정된 셈이다.

강기훈씨의 필체는 강씨가 87년 옥중에서 보낸 수많은 편지와 기사 앞에서 직접 공개적으로 작성한 필적에 의해 유서와 필체가 다르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85년 경찰진술서가 유서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과수연의 감정결과를 유일한 증거로 유서 대필을 단정했다. 과수연의 감정은 전혀 그 근거가 공개되지도 않았고, 감정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는 신빙성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수첩조작에 대해 말한다면 검찰의 주장은 강기훈씨가 수첩 중 주소록 일부를 찢어내고, 새로 작성된 주소록을 끼워넣었다는 것인데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억지이다. 검찰이 강기훈씨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첩의 스케줄 부분은 100% 고 김기설동지의 것이다. 그런데 스케줄이 강기훈씨의 것이라는 증명을 검찰은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과수연의 찢어진 부분에 대한 감정결과는 전혀 압득할 수 없고, 설사 그 감정결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스케줄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것이 유서를 대필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될 수 없다.

강기훈씨에 대한 영장발부는 이미 드러난 자신들의 유서대필 조작음모를 은폐하고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며, 민주세력을 탄압하려는 음흉한 술책이다. 이는 25일 경찰의 폭력적 시위진압에 의해 발생한 김귀정 학생의 죽음으로 살인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재차 폭발되는 것을 희석화시켜 보려는 낱아빠진 수법이다. 또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는 죽은자의 신념을 모독하고, 산자의 인권을 유린하여 억지조작과 왜곡날조로 진실을 호도해야 하는 그들의 위기를 반증하는 것이다.

누가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조작하려 하고 있는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자주,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기려 투쟁하는 우리인가? 아니면 고인의 죽음을 모독하고 고인의 소망인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를 탄압하는 노태우정권인가? 우리는 노태우정권의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작태에 분노한다. 더이상 노태우정권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이 무엇인가를 설복하며, 공방을 벌이는 것은 무가치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건이 검찰의 사실인식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기를 바랬고, 국민을 현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아 유서가 고인의 필적이고 고인의 죽음이 강기훈씨와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 제출을 통해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실이 명백하자자 돌연 우리가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를 모두 조작이라 강변하고 강기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단순한 수사차원을 넘어서 범죄행위를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제 국회, 대한변협, 종교인 등 각계의 양심세력에게 호소하여 검찰의 증거자료 조작과정 및 강압수사를 포함한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노정권의 범죄행위를 만천하에 폭로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1991. 5. 27.

전 국민족민주운동연합

자료 가3-17 김기설 수첩 내용 주석(전민련)

〈수첩 내용 주석〉(5월 27일 현재 확인된 것에 한함)

- 1) '동민'(4.8)은 동서를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의 약자이며 김기설이 민청련에 깊이 관여했던 반면 강기훈은 민청련과는 전연 관계가 없었다.
- 2) '민직' '중민'(4.9 화)은 각각 민주화운동직장청년연합, 중서물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 약자이며 이는 강기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다.
- 3) '목오예배'(4.18 목)는 속초 동우전문대학 학내비리및 투쟁을 주제로 한 INCC주최의 목오예배였다. (기독교 회관 2층). 속초 동우전문대학 문제는 전민련에서 서준식 인권위원장과 김기설의 고유 업무였으며 다른 사람은 일체 간여하지 않았고, 이날 목오예배 역시 서준식, 김기설외에는 전민련에서 참석한 사람은 없었다. <15, 19, 24> 참조
- 4) '원천레이온'(4.18 목, 4.20 토, 4.22 월, 4.25 목, 4.28 일, 4.29 월)경기도 미곡시 원천레이온 직업병 사망자 김봉환씨 장례대책위원회의 각종 회의, 집회 스케줄을 의미하며, 이 문제 역시 전민련에서는 서준식, 김기설만의 고유 업무였다. 5월1일의 '원천신문 스크랩'도 같은 의미.
- 5) '주거권쟁취 결의 대회'(장충단 공원) : 4.21 일  
 '지구의 날 시민 걷기 대회' : 4.21 일  
 '공안통제 본색과 국보철폐 결의 대회' : 4.24 수  
 '전농장립 1주년 연대(장기원)' : 4.24 수  
 이것은 집회 스케줄이며, 4월 18일(목)20시경 전민련 사무실에서 김기설이 송의여자 전문대학 총학생회장 이보명의 2명이 보는 앞에서 적어서 건네 준 '송의여전 메모'와 내용도 필적도 완전히 일치한다.
- 6) '강계정집 철폐 무기한 농성'(4월 27토, 4.28 일)은 역시 전민련에서 서준식, 김기설만이 간여한 고유 업무였으며, 여의도 신민당사에서 있었던 이 농성투쟁연장에 김기설이 참석했음이 강계정집 철폐 대책위(준비모임)에 의하여 증명된다.
- 7) '민교협(민권)'은 국민연합, 민권투위 회의가 4월 23일(화)에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사무실에서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민권투위 회의 참석은 본래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의 고유 업무였으나, 서준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김기설이 대리참석을 했다. 이 두사람 외에 전민련에서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없다.
- 8) '진(지)'는 김기설만이 알고 있는 기호였다. 김기설만이 알고 있는 기호였다. 1990년 5월 9일 이후 계속 수배중인 한상필 전민련공동의장을 보안유지를 위하여 '진선생'이라고 불렀으며 이 '진선생'과의 연락업무는 오로지 김기설만의 고유 업무였다. (지)는 지현다방을 의미한다. < 22, 25> 참조
- 9) '중헌형'(4.24 토)은 전민련 전 사회부장 남중헌을 의미한다. 남중헌은 82학번이며 강기훈과는 동기로서 강기훈이 남중헌을 "형"이라 부를 이유는 없으며 반면에 김기설은 후배로써 남중헌씨를 늘 "형"이라 불렀다.
- 10) '성은(카트맨)'(4.25 목)은 김기설이 여자 친구인 홍정은과 20시 301년에 카트맨에서 만날 약속을 적은 것이다.
- 11) '학팀(소.세)'는 (4.29월)학팀다방에서 '소리세벽'과 관계가 있던 사람은 김기설밖에 없으며, 이것은 김기설의 개인 스케줄이다.
- 12) 5월 6일(월)부터 5월 11일(토)까지 순차적으로 잡혀 있는 방송통신대학 '소리세벽' '멤버인' '이지혜, 용희(7), 기관-용희, 국영'과의 약속은 김기설의 개인 스케줄이다.
- 13) '터사랑 청년회 해동머리 42-7481-전민련에서 터사랑 청년회와 관계가 있는 사람

은 김기설 한사람 뿐이다. 김기설을 터사당 청년의 창립대의(1989년)에 참석하여 그 방명록에 한정덕이라는 가명으로 자필 이력서를 남겼다. (헤몽머리-터사당 청년회의 고등학생 모임)

14) '민청 42-8355'—속초 동우전문대학에서 학원비리와 폭력에 항의하여 본신한 정연석이 원주 기동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이 사건에 간여한 김기설은 원주 민청과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15) '0372)-32-1394'는 속초의 비디오 가게 '공동체'(지금은 전화번호가 바뀌었음)의 전화번호로서 학내 민주화운동의 핵심이었던 속초 동우전문대학 학생들이 이 '공동체'에 자주 모였으며, 거의 유일한 연락처였다. 전민련에서 속초와 관계를 가진 사람은 서준식과 김기설외에는 없다.

16) '829-7716(신문사)'는 한남대학교 신문사의 전화번호이며 한남대 신문에 원고를 기고한 이 학교 신문사와 관계를 가진 전민련내의 유일한 인물이다.

17) '이현우 457-1881'은 강기훈의 자택 전화번호를 의미하며 '이현우'는 전민련에서 사용한 강기훈의 가명이다. 만약에 이것이 강기훈 수첩이라면 강기훈이 가명으로된 자택 전화번호를 자기 수첩에 적지 않을 것이다.

18) '홍성은'—김기설의 여자친구

19) '송의여전 752-7828, 773-2600'—전민련에서 송의여전과 관계가 있던 사람은 서준식과 김기설 뿐이었다. 773-2600은 송의여전의 대표전화 번호이며, 원래 김기설 수첩에는 이 번호 밖에 없었으나, 4월 18일 목요일에 <3>참조> 직후 기독교회관 지하 귀빈다방에서 서준식, 김기설이 송의여전 학생 3명과 외동한 자리에서 이 학교 총학생회 직통전화번호 752-7828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 김기설이 추가로 적어 놓은 것이다. (증언-송의여전 총학생회장 이보영의 2명)

20) 여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은 김기설이 성남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친구들이름이며, 강기훈은 성남과는 전연 무관하다.

21) 김기설 가족들의 전화번호

22) '권선생 576-5079 000/0'은 수배중인 전민련 공동의장 한상렬의 연락처였으며 이 번호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김기설의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었다. <8>참조

23) '0348-942-8390(한송흠)'은 김기설이 가장 절친했던 고참친구이다. 김기설이 본신하기 전날인 7일 저녁, 마지막으로 홍성은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죽으면 한송흠에게 반드시 연락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별도로 홍성은 앞에 적어 놓은 부분이다.

24) '목요일에 모금(4/18)-38600'—는 4월 18일 목요일에 <3>참조>에서 송의여전 학생들이 동우전문대 학원자주화 투쟁을 위하여 모금한 옛수를 기록한 것이며, 이것을 송의여전 학생들이 목격하여 증언한 바 있다. <3>, 15, 19) 참조

25) 수배중인 한상렬 공동의장과의 주요 약속장소 메모.

수첩사료

4월 1991 통일일기 47년

①	9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②	9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7	7	7	7	7	7	7	7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11	11	11	11
12	12	12	12	12	12	12	12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수첩자료2

1991년 4월  
 4월 1일 ~ 10일  
 주별 계획  
 "자신의 나" 시정교사회  
 "자신의 나" 시정교사회  
 "자신의 나" 시정교사회

전도성 봉성

⑤

③

④

④

수첩자료3

4월 4일 수요일  
 1991년 4월  
 4월 7일 ~ 10일  
 김기철 수첩 내용 주석(전민련, 1991.5.27.)

⑥

⑤

④

⑦

⑧

⑨

④

⑧

⑩

수첩자료 4

4월 15일 1991 통일연인 47년

17일(토) 18일(일) 19일(월) 20일(화) 21일(수) 22일(목) 23일(금) 24일(토) 25일(일)

29일 30일 31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④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수첩자료 5

5월 1991 통일연인 47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⑬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수첩자료 6

함께하는길, 03471 64-4337

강원지역 민족민주운동단체

한양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T.O.M) - 51 (8873)  
 (88) 5101 강간노 민중회 역삼동 200-6  
 연일노조 개회(T.O.M) 51 (9171)  
 (88) 5109 강간노 연일시 5개교 1901-1922  
 한양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수원 B.V.T.  
 함백지역 단체  
 함백지역 연공협동조합(T.O.M) (9191-9201)  
 (88) 8201 강간노 함백시 공립초교 교장 200001412  
 함백시/노조 부흥추진위원회(T.O.M) 11 (9180)  
 (88) 8221 강간노 함백시 공립초교 앞대원초 2001 1  
 함백-함남간 노조연합회 연일시(T.O.M) 200 2074 노원 2070  
 (88) 2004 강간노 함백시 수월로 부속초 앞에서 거행된 노조 노조연합회  
 함백 노조총괄위원회(T.O.M) 11 (9122)  
 (88) 8221 강간노 함백시 공립초교 앞대원초 200  
 함백 새마을 운동위원회(T.O.M) 20 (9121)  
 (88) 8211 강간노 함백시 교원공 앞대원초 2001  
 함백시 연일시 부속초 앞대원초(T.O.M) 41 (9123)  
 (88) 8211 강간노 함백시 교원공 앞대원초 1도 200 11  
 연일시(T.O.M) 11-2003  
 (88) 8211 강간노 함백시 교원공 앞대원초 2001  
 여말노조개회(T.O.M) 41 (9120)  
 (88) 8211 강간노 함백시 교원공 앞대원초 2001  
 노조개회(T.O.M) 41 (9121)  
 (88) 8211 강간노 함백시 교원공 앞대원초 2001 11  
 함백 4 연일시 새마을위원회(T.O.M) 41 (9124)  
 함백지역(T.O.M) 41 (9125)  
 (88) 8211 강간노 함백시 교원공 교도 2000141  
 가이제 연일시 새마을 42-7481  
 함백-8201 강간노 함백시 연일시 연일초 2000-32  
 함백지역 자연농민위원회(T.O.M) 11 (9171)  
 (88) 8211 강간노 함백시 교원공 앞대원초 2001 11  
 여말노조 연합위원회(T.O.M) 41 (9120)  
 (88) 8221 강간노 함백시 공립초교 앞대원초 2001-32  
 연일시 새마을위원회(T.O.M) 41 (9121)  
 (88) 8211 강간노 함백시 교원공 앞대원초 2001-11  
 Y.M.C.A.(T.O.M) 41 (9121)  
 (88) 2011 강간노 함백시 교원공 앞대원초 10면적 20(20)세  
 함백시(T.O.M) 41 (9121)  
 (88) 8211 강간노 함백시 교원공 앞대원초 55 2001

중원지역 단체  
 중원연공협동조합(T.O.M) 105 (2000)  
 (88) 1051 강간노 중원시 10500 108-15  
 중원지역연공협동조합(T.O.M) 105 (9171)  
 (88) 1051 강간노 중원시 1도 1도 1도 200 2003  
 새마을위원회(연일시)(T.O.M) 51-1051  
 (88) 1051 강간노 중원시 1도 1도 1도 1000  
 중원연공협동조합(T.O.M) 51-2000  
 (88) 1051 강간노 중원시 1도 1도 100  
 연일시(T.O.M) 51-1000  
 (88) 1051 강간노 중원시 1도 1도 100  
 연일시(T.O.M) 51-1000  
 (88) 1051 강간노 중원시 1도 1도 100  
 연일시(T.O.M) 51-1000  
 (88) 1051 강간노 중원시 1도 1도 100  
 연일시(T.O.M) 51-1000  
 (88) 1051 강간노 중원시 1도 1도 100  
 연일시(T.O.M) 51-1000

⑬ ⑭

연일시 49-1031

수첩자료 7

대동지역 단체  
 강간노 새마을위원회(T.O.M) 51 (9121)  
 (88) 5101 강간노 새마을 역삼동 200-19  
 연일노조개회(T.O.M) 51 (9171)  
 (88) 5101 강간노 새마을 역삼동 572  
 연일노조개회(T.O.M) 51 (9171)  
 (88) 5101 강간노 새마을 역삼동 572  
 연일노조개회(T.O.M) 51 (9171)  
 (88) 5101 강간노 새마을 역삼동 572  
 연일노조개회(T.O.M) 51 (9171)  
 (88) 5101 강간노 새마을 역삼동 572  
 연일노조개회(T.O.M) 51 (9171)

서쪽지역 연공협동조합(T.O.M) 51 (9121)  
 (88) 5101 강간노 새마을 역삼동 172-2  
 새마을위원회(T.O.M) 105 (9171)  
 (88) 1051 강간노 새마을 역삼동 106-5  
 대동지역(T.O.M) 41 (9121)  
 (88) 1051 강간노 새마을 역삼동 106-5  
 Y.M.C.A.(T.O.M) 51 (9121)  
 (88) 1051 강간노 새마을 역삼동 106-5  
 Y.W.C.A.(T.O.M) 41 (9121)  
 (88) 1051 강간노 새마을 역삼동 106-5  
 대동지역(T.O.M) 41 (9121)  
 (88) 1051 강간노 새마을 역삼동 106-5  
 대동지역(T.O.M) 41 (9121)  
 (88) 1051 강간노 새마을 역삼동 106-5  
 대동지역(T.O.M) 41 (9121)

중원지역 연공협동조합(L.O.M) 51 (4301)  
 (88) 5101 강간노 새마을 역삼동 106-5  
 연일노조개회(T.O.M) 51 (9171)  
 (88) 5101 강간노 새마을 역삼동 572  
 연일노조개회(T.O.M) 51 (9171)  
 (88) 5101 강간노 새마을 역삼동 572  
 연일노조개회(T.O.M) 51 (9171)

대진-홍남지역 민족민주운동단체  
 대진-홍남 연공협동조합(T.O.M) 51 (9121)  
 (88) 5101 강간노 새마을 역삼동 106-5  
 대진-홍남 연공협동조합(T.O.M) 51 (9121)

⑮

대진-홍남지역 민족민주운동단체  
 대진-홍남 연공협동조합(T.O.M) 51 (9121)  
 (88) 5101 강간노 새마을 역삼동 106-5

수첩자료 8

순천대학교(T.0024-02-0000)	중앙대학교병원(T.0024-201-0001-01)
(050-000) 전남 순천시 예성동 305	(050-2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신촌4-1
순천대학교(T.0027-02-0000)	전주교육대학교(T.0024-2-0000)
(050-000) 전남 여주시 신성동 칠재리 50-1	(000-000) 전남 완주시 완안로 200
이화여자대학교(T.0024-20-0000)	보안기술대학교(T.0024-00-0000)
(010-2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도	(000-000) 전남 목포시 오암로 100
한양대학교(T.0024-05-0000)	영남대학교(T.0024-00-0000)
(020-200) 서울 중구 남대문로 204	(010-2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대로 271-1
이공대학교(T.0024-2-2100)	조선대학교(T.0024-27-0000)
(010-200) 전남 여주시 덕포리 205	(090-000) 전남 목포시 삼거리 201-2
영남대학교(T.0024-00-0000)	한양대학교(T.0024-02-0000)
(010-2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대로 271-1	(050-200) 전남 여주시 신성동 301-2
조선대학교(T.0024-27-0000)	한세대학교(T.0025-00-0000)
(090-000) 전남 목포시 삼거리 201-2	(020-000) 전남 담양시 서면동 산 10-3
한양대학교(T.0024-02-0000)	위례대학교(T.0024-00-0000)
(050-200) 서울 중구 남대문로 204	(020-000) 전남 담양시 서면동 산 10-3
영남대학교(T.0024-00-0000)	한국과학기술대학교(T.0024-00-0000)
(010-2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대로 271-1	(020-000) 전남 담양시 서면동 산 10-3
이화여자대학교(T.0024-20-0000)	한국과학기술대학교(T.0024-00-0000)
(010-2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도	(020-000) 전남 담양시 서면동 산 10-3
한양대학교(T.0024-05-0000)	한국과학기술대학교(T.0024-00-0000)
(020-200) 서울 중구 남대문로 204	(020-000) 전남 담양시 서면동 산 10-3
이공대학교(T.0024-2-2100)	한국과학기술대학교(T.0024-00-0000)
(010-200) 전남 여주시 덕포리 205	(020-000) 전남 담양시 서면동 산 10-3
영남대학교(T.0024-00-0000)	한국과학기술대학교(T.0024-00-0000)
(010-2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대로 271-1	(020-000) 전남 담양시 서면동 산 10-3
조선대학교(T.0024-27-0000)	한국과학기술대학교(T.0024-00-0000)
(090-000) 전남 목포시 삼거리 201-2	(020-000) 전남 담양시 서면동 산 10-3
한양대학교(T.0024-02-0000)	한국과학기술대학교(T.0024-00-0000)
(050-200) 서울 중구 남대문로 204	(020-000) 전남 담양시 서면동 산 10-3

16

수첩자료 9

이명준	020-692-7041	김기철	041-0961-5
최재민	962-7149	민현	62-7240
홍진호	859-8241	윤종철	0343) 43-2690
유수용	914-5232	유종철	0343) 944-46
이인영	950-0699	유종철	0346) 60-0942-3
한재익	694-2772	유종철	462-1021
양사원	616-4708	김성희	604-4404 (동라후)
김용민	0244) 62-5695	안희정	686-2726
이현우	450-1881	이희정	0351) 63-0396
김문영	904-9072	송민지	0351) 875-6553
김민준	67-4443	김기철	461-6250
이희정	563-9007	서권수	308-1368
김기철	767-1891, 754411	김신래	909-2754
김기철	767-1891, 754411	유종철	720-7008
김기철	767-1891, 754411	유종철	0346) 62-3004
김기철	767-1891, 754411	DL기철	738-2767

17

18

1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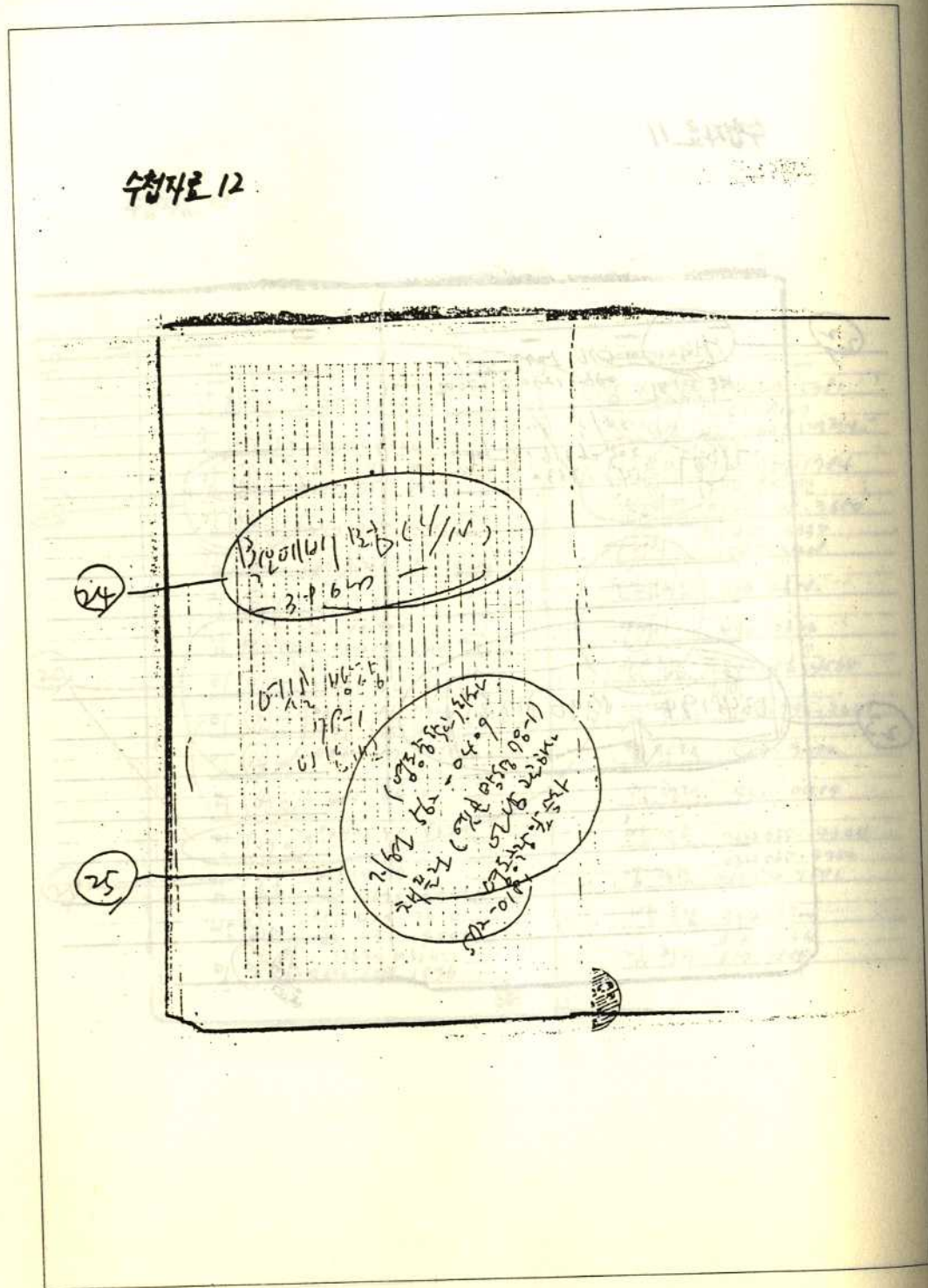
수첩자료 10

NAME	OFFICE	PHONE
김기설	0254-1020	
송하진	444-834	
김기설	03421-1181	
김기설	03421-751-6954	
김기설	03421-751-2618	
김기설	582-3541	400-5680
김기설	413-9477	
김기설	44-9897	
김기설	03421-41-1601-53	
이기설	03421-24-7233	
이기설	03421-46-7004	
이기설	052-255-4256	
이기설	03421-47-5078	
주기설	603-5410	
자기설	03421-42-5599	
김기설	446-9767	
김기설	03421-6620-5051	
박기설	35-417-1714	
박기설	35-331-9240	
박기설	(3534) 03173	
박기설	03361-635-1576	
이기설	03421-47-5078	
김기설	463-1107	
김기설	401-2621	(1972년)
김기설	03421-757-1784	
김기설	03421-48-3680	
김기설	31427-3335	
김기설	465-4388	
김기설	466-2258	
김기설	496-0362	
김기설	03421-56-4866	
김기설	03421-793-3308	
김기설	809-9052	
김기설	931-0417	
박기설	0321-655-4344	
박기설	0321-665-9230	
박기설	04311-4-7151	
박기설	334-99-	
김기설	812-1134	
김기설	812-1885	

수첩자료 11

NAME	OFFICE	PHONE
김기설	596-1079	000/0
박기설	326-1230	2-27001
김기설	1/3-611-	
김기설	303-4716	(기)
김기설	841-3630	
김기설	03421-94-	(390 신상음)

수첩자료 12



◎ 91년 5월 28일 ◎

☐자료 가-1-90 (수사기록 584)

기 안 용 지  
(전화 : 530-4941)

분류기호 문서번호 강력23110-013499  
 시행일자 1991. 5. 28  
 주임검사 윤 석 만  
 수 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참 조 문서감정실장  
 발신명의 검 사 장  
 제 목 필적 동일여부 감정의뢰

당청에서 수사중인 변사자 김기설에 대한  
 변사사건에 필요하니 다음 5가지 필적 상호간의 동일  
 성 여부를 감정하여 당청 윤석만 검사실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유서 2매.
2. 전민련에서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1권.
3. 김기설의 친구(홍성은)로부터 제출받은 메모 1매.
4. 강기훈이 단국대학교 화학과 재학 당시 사용한 공  
 책 1권.
5. 강기훈 작성의 진술서 1부. 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토/서실/행/인/자/성

자료 가-3-18

1991년 5월 28일

전민련 논평

1.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무고한 사람을 구속하려는 기도에 우리는 용할 수 없다. 오히려 객관적 진실을 왜곡 날조하고 무고한 삶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자는 검찰이다.
2. 누차 밝힌 바와 같이 공개되고 안정된 장소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는 언제든지 용할 수 있다. 이는수사를 기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3.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전민련의 조사제의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국가기관의 권위를 빙자한 검찰의 일방적 횡포이다.

310 자료 가-2-25

자료 가-2-25 (동아, 91년 5월 28일)

東 亞 日 報

金基熙씨 '부신'背後 '인사'일까

마지막 30일 행적의 열쇠

정당명 금기... 김기熙(金基熙) 씨의 '부신'... 6일 오후부터 28시간이 미국... 부신지진 3시간도 확인안돼... 김기熙(金基熙) 씨의 '부신'... 김기熙(金基熙) 씨의 '부신'... 김기熙(金基熙) 씨의 '부신'...

公權力的 위신실추와 그 회복

공권력의 위신실추와 그 회복... 김기熙(金基熙) 씨의 '부신'... 김기熙(金基熙) 씨의 '부신'... 김기熙(金基熙) 씨의 '부신'...

姜씨 卽狀집행 불응해도 강제연행 양기로

姜씨 卽狀집행 불응해도 강제연행 양기로... 19. 5. 28. 동아... 김기熙(金基熙) 씨의 '부신'... 김기熙(金基熙) 씨의 '부신'... 김기熙(金基熙) 씨의 '부신'...

31

◎ 91년 5월 29일 ◎

☐자료 가-1-91 (수사기록 585~590)28)

국립과학수사연구소  
(698-2012)

이화삼 23011-5828 1991. 5. 29.  
수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참조 검사 윤석만  
제목 필적등 감정의회보

1. 강력23110-013377, 013378,  
013499 (1991. 5. 27, 28) 관련입니다.  
2. 위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합니다.

첨부 : 감정서 3부.  
사 진 19매.  
증거물 1, 2, 3, 4, 5 5부.  
-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화삼 23110-5828 (698-2012) 1991. 5. 29.

수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참조 검사 윤석만  
제목 필적등 감정의회보

1. 강력23110-013377, 013378, 013499 (1991. 5. 27, 28)  
관련입니다.  
2. 위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합니다.

첨부 : 감정서 3부.  
사 진 19매.  
증거물 1, 2, 3, 4, 5 5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9 91 년 5 월 29 일

#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화삼  
문서 감정실

의뢰관서명 : 서울지방검찰청

28) 수사기록 590정 다음장에 다시 571정부터  
590정까지로 기재되어 있음.

# 감정서 (2)

이화상 23110호 (대강력 23110-013499 호 1991년 5월 28일) 013378 27

의뢰관서명: 서울지방검찰청

1. 증거물: 가. (1) 유서 2매.

나. (2) 전민련에서 김기설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1권.

다. (3) 김기설 친구(홍성은)로부터 제출받은 메모 1매.

라. (4) 강기훈의 노트(단국대 재학당시) 1권.

마. (5) 강기훈 작성의 진술서 1부.

2. 감정사항: 위의 (1), (2), (3), (4), (5) 필적의 각각 이동여부.

3. 감정방법: 현미경, 입체현미경, 비교확대기,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등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필의 구성과 배자(配字)의 형태, 필세(筆勢), 필순(筆順)에 의한 운필(運筆) 순서, 조형미, 필의 방향, 각도, 간격, 운필(運筆) 상태를 검사하고 기필(起筆) 부분과 종필(終筆) 처리부분, 직선적이고 곡선적인 필의 특성, 숙련과 미숙련 차이, 자음(子音)과 모음(母音)의 특징, 개인의 잠재습성등을 주시 검사 하였음.

김기설  
김기훈

4. 감정소견: 위의 방법에 의한 종합정밀검사에서 유서는 싸인펜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첩은 종은난에 기재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작고 움추린 형태이며, 메모지는 백지에, 노트와 진술서는 선이있는 용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기재연도와 필기구 종류의 차이 및 기재조건등에 의하여 부분적인 변화점은 있으나 각종 증거물에서 관찰되는 일관성 있는 특징을 기준으로 각 필적을 대조한바, 첨부사진 제 1 - 10호의 주선표시와 같이 필의 구성과 배자의 형태, 기필부분과 종필습성, 자음과 모음의 구성, 필획간의 연결되는 위치와 각도, 접필상태등에서 상호 상사점이 관찰되며, 특정필획이 생략되었거나 필획의 침범부분, 자음과 모음을 두종류로 기재하는 개인의 잠재습성등에서도 특징적인 상사점이 관찰되며, 일부 외형상의 부분적인 차이점은 있으나 전체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이는 기재과정상에서 나타날수 있는 개인간의 변화 및 기재조건등에 의한 변화점으로 사료됨. 확대점부된 사진은 표기문위하여 임의로 선정함것임  
첨부사진 18매 참조.

5. 감정결과: 이상의 감정소견과 같이 (1)유서, (2)수첩부분 및 전화번호 기입란 3개, (3)메모, (4)강기훈의 노트, (5)진술서 필적은 모두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됨.

1991년 5월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기영

### 감 정 서 (2)

이 화 제23110- 호 (대강력23110-01337호 1991년 5 월 27 일)  
의회관서명 서울지방검찰청

1. 증거 물 전민련에서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1권.

2. 감정 사항 가. 감정대상의 수첩에 찢어져 있는 전화번호기입 부분 3매와 수첩상의 잔류부분을 대 보았을때,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나. 기타 절취선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사항.

3. 감정 결과 가. 감정대상 수첩의 찢어진 부분에서는 절취선에 잔류상태가 돌출되어 나타나 있는바, (첨부된 사진 19 참조) 잔류형태는 3매정도로서 찢어져 있는 전화번호기입 부분과는 돌출된 잔류형태와 일치되는 부분이 나타나 있지않고, 오히려 돌출부분이 3매와 겹쳐지는 상태이므로 절취선을 일치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나. 수첩 절취부분의 잔류상태중에서 1매는 길게 잔류상태가 남아 있으나, 2매는 상단에 부분적으로 돌출된 부분이 잔류하고 있으며, 이 돌출부분이 현재의 3매와는 겹쳐진 상태는 있으나, 절취선과 잔류상태 부분에서 일치되지도 아니하고, 일부 모자라는 부분에서도 일치되는 부분은 관찰되지 아니함.

첨 부 사 전 1 매.

서기 1991년 5 월 29 일

감 정 인 국립과학수사연

이화학과

### 감 정 서 (3)

이 화 제23110- 호 (대강력23110-0127호 1. 1991년 5 월 21 일)  
의회관서명 서울지방검찰청

1. 증거 물 가. (1) 유서 2매.

나. (2) 수사기록에서 발췌한 강기훈의 진술서 1부.

다. (3) 강기훈이 1987.4 옥중에서 동생에게 보냈다는 편지 1매.

이 하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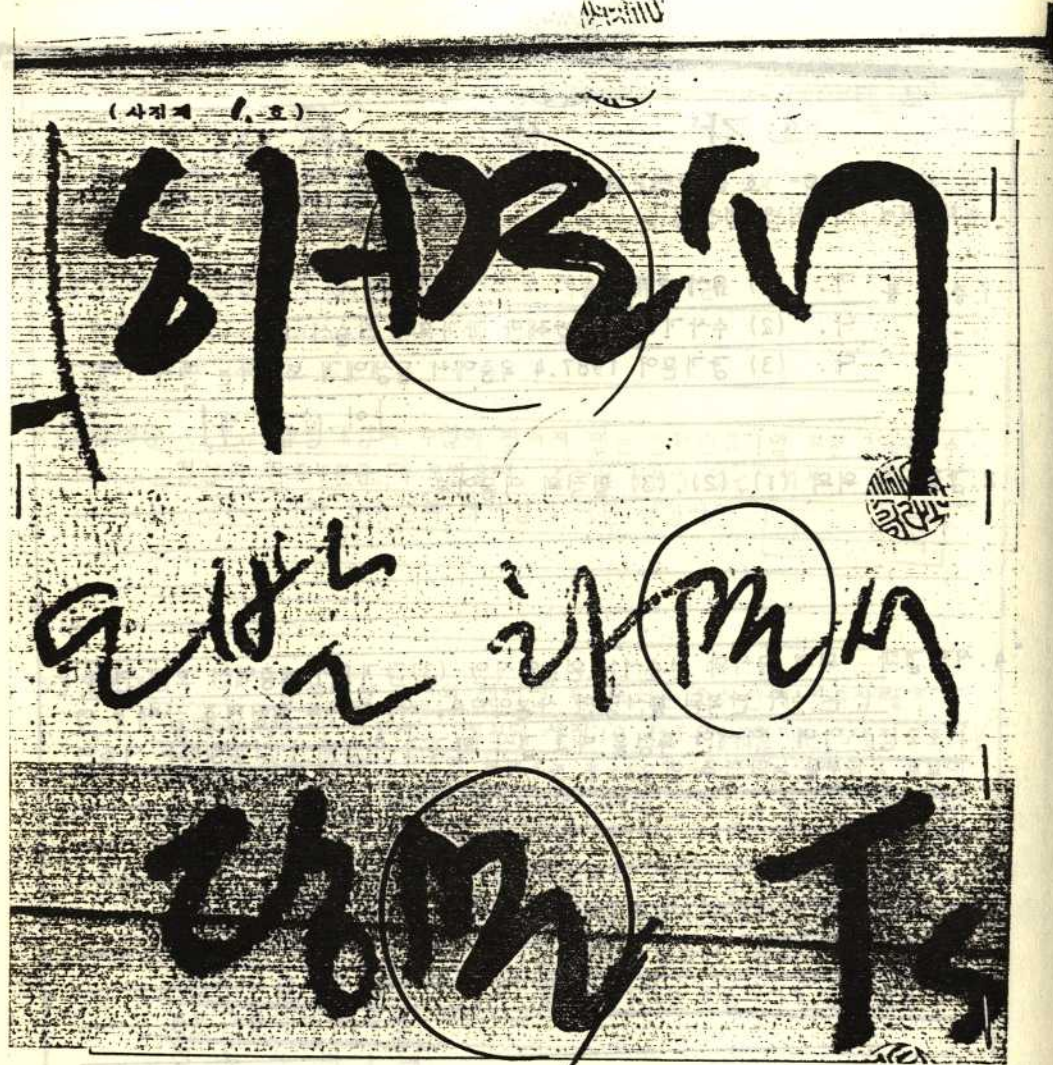
2. 감정 사항 위의 (1), (2), (3) 필적의 이동 여부.

4. 시험 결과 위의 유서와 진술서는 원본이지만 (3) 강기훈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는 수차 반복된 불선명한 사본이므로, 사본에서는 특징현출 상태가 약하여 미세한 특징을 비교 검사 하기가 어려워서 사본에서는 이동 여부를 논단할 수 없음.

서기 19891년 5 월 29 일

감 정 인 국립과학수사연

이화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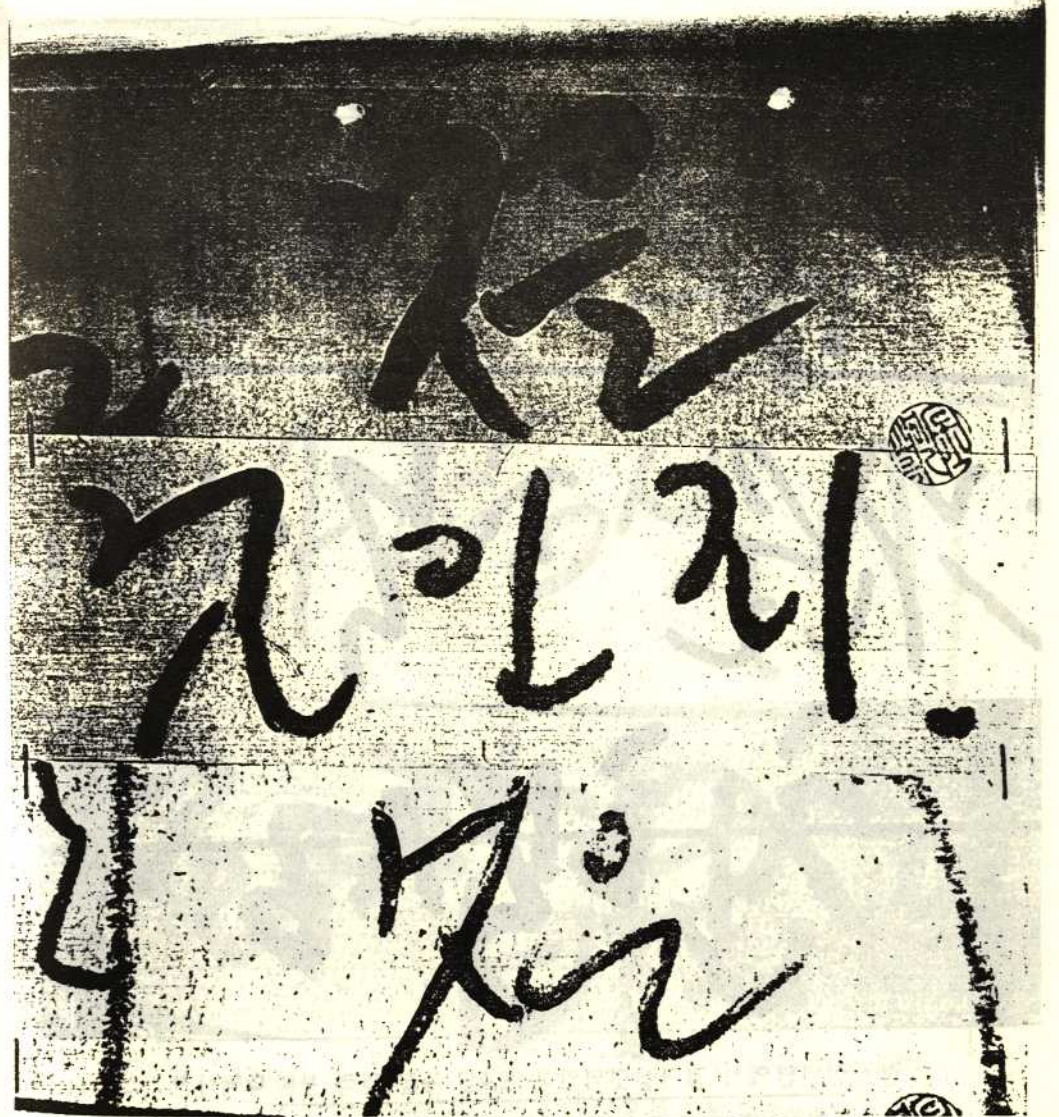
상: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중: 강기훈 작성의 진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 강기훈의 노트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상: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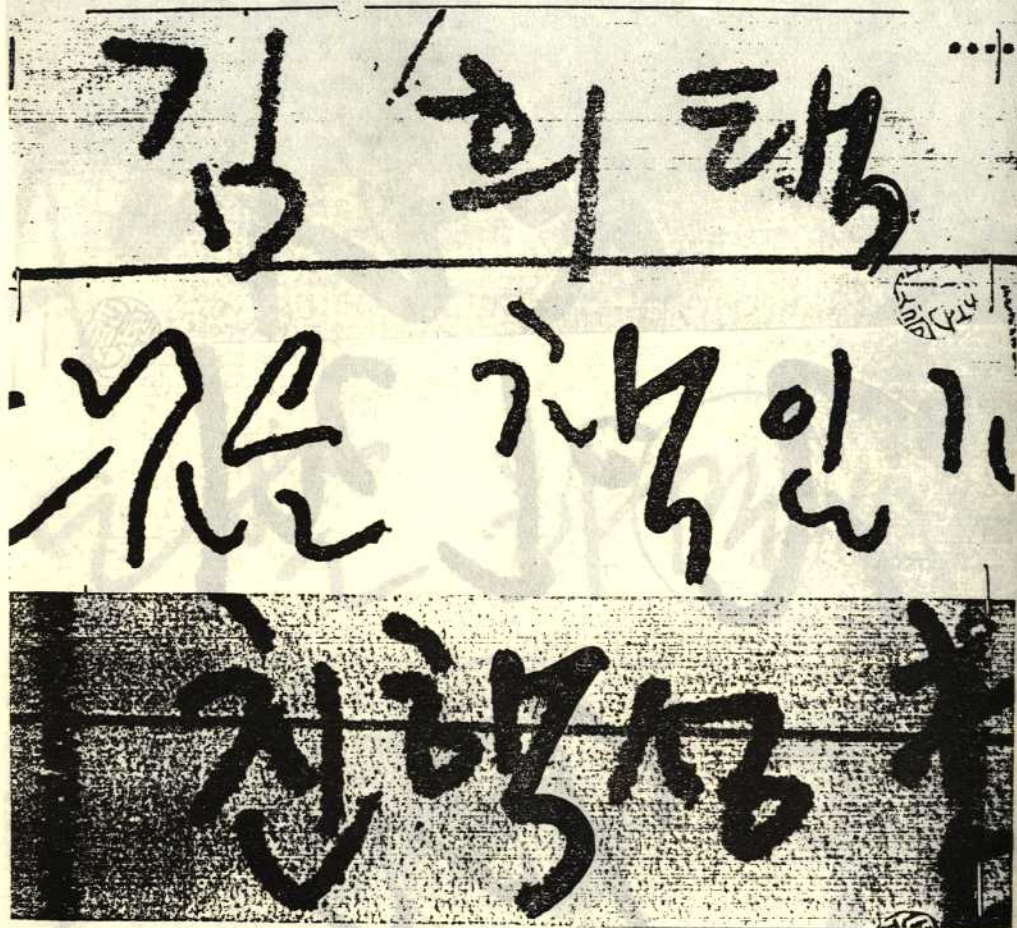
중: 김기철 친구로부터 제출받은 메모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 강기훈 작성의 진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제 3 호)



상: 전민련에서 김기훈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필적 부분 확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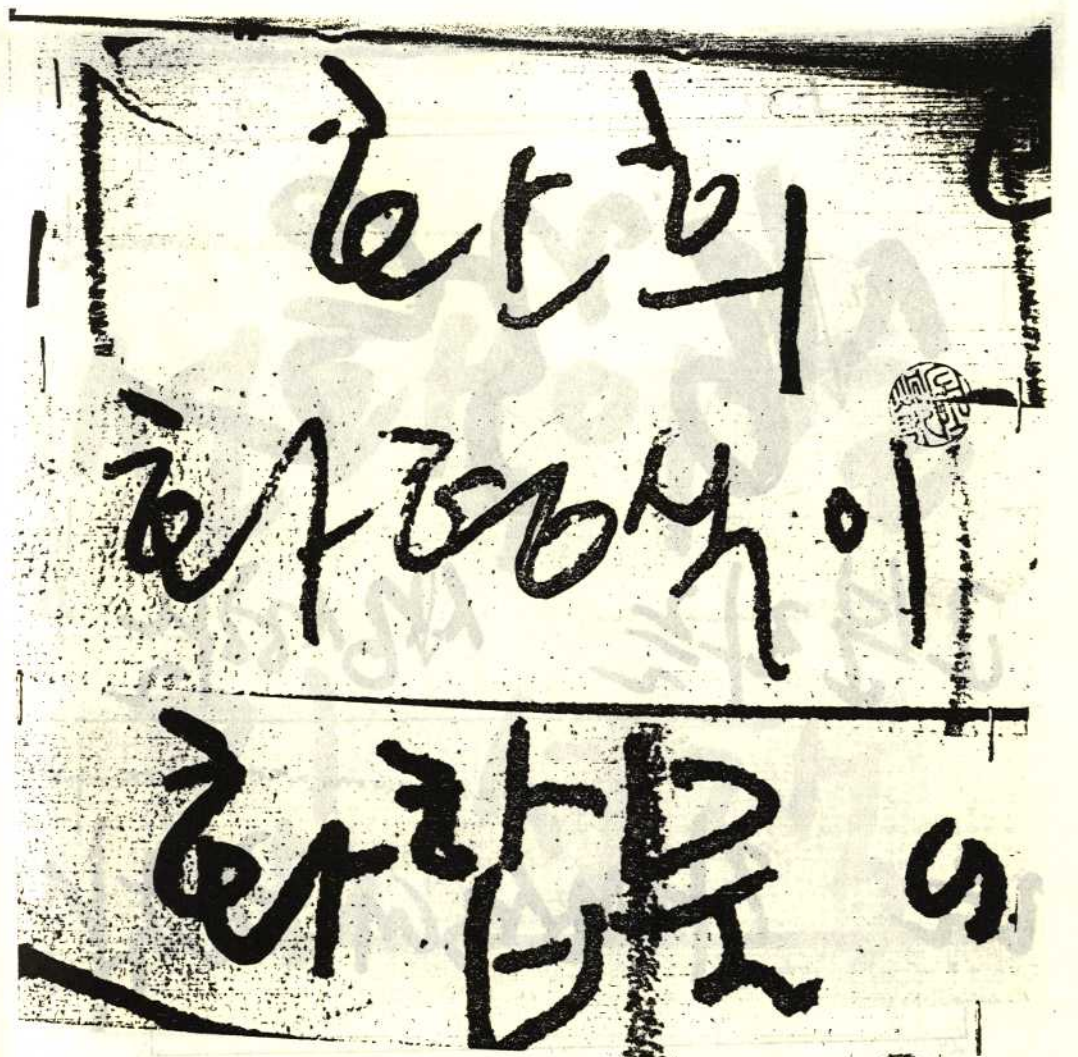
중: 김기훈 친구로부터 제출받은 메모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 김기훈의 노트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 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K01



상: 김기훈의 친구로부터 제출받은 메모 필적 부분 확대사진.

중: 김기훈 작성의 진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 김기훈의 노트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 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K01



(사진제 5호)

생각은

고부라든 생각하는

는 자생성에 찬양

상: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중, 하: 강기훈 노트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제 6호)

선생님이

김선생

상: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 전민련에서 김기설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제 7호)

서준생의

서준생

상: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 전민련에서 김기실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필적 부분 확대사진.

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준생이

서준생

서준생의 필적은

상: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중: 전민련에서 김기실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 강기훈의 노트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598

무엇을 향  
 일 무엇  
 ( )

상: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중: 전민련에서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 강기훈 작성의 진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수사분석입니다  
 1970

위인당씨  
 이(3월 1) 744-3717  
 +) 744-6189

상: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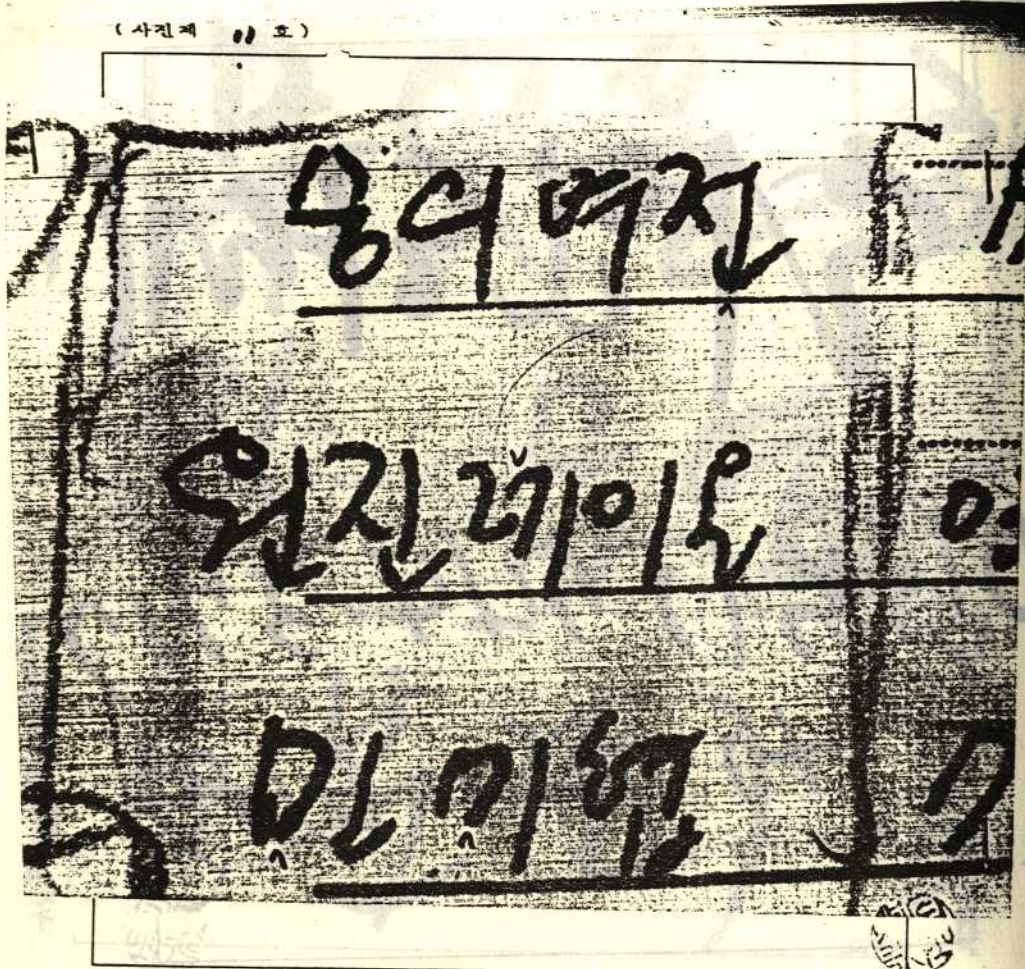
하: 전민련에서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수사분석입니다  
 1970

( 사진계 11 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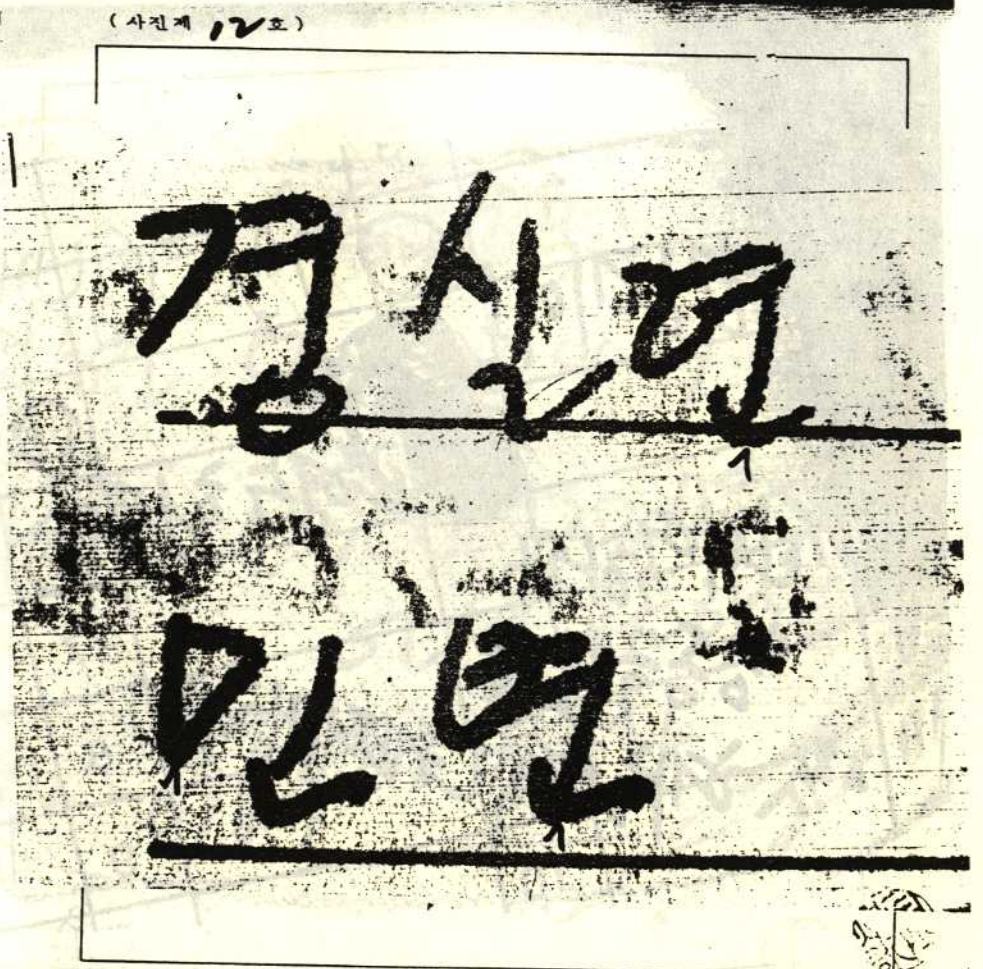
수첩의 전화번호 기입 필적 부분 확대사진.

성 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101-212  
501

( 사진계 12 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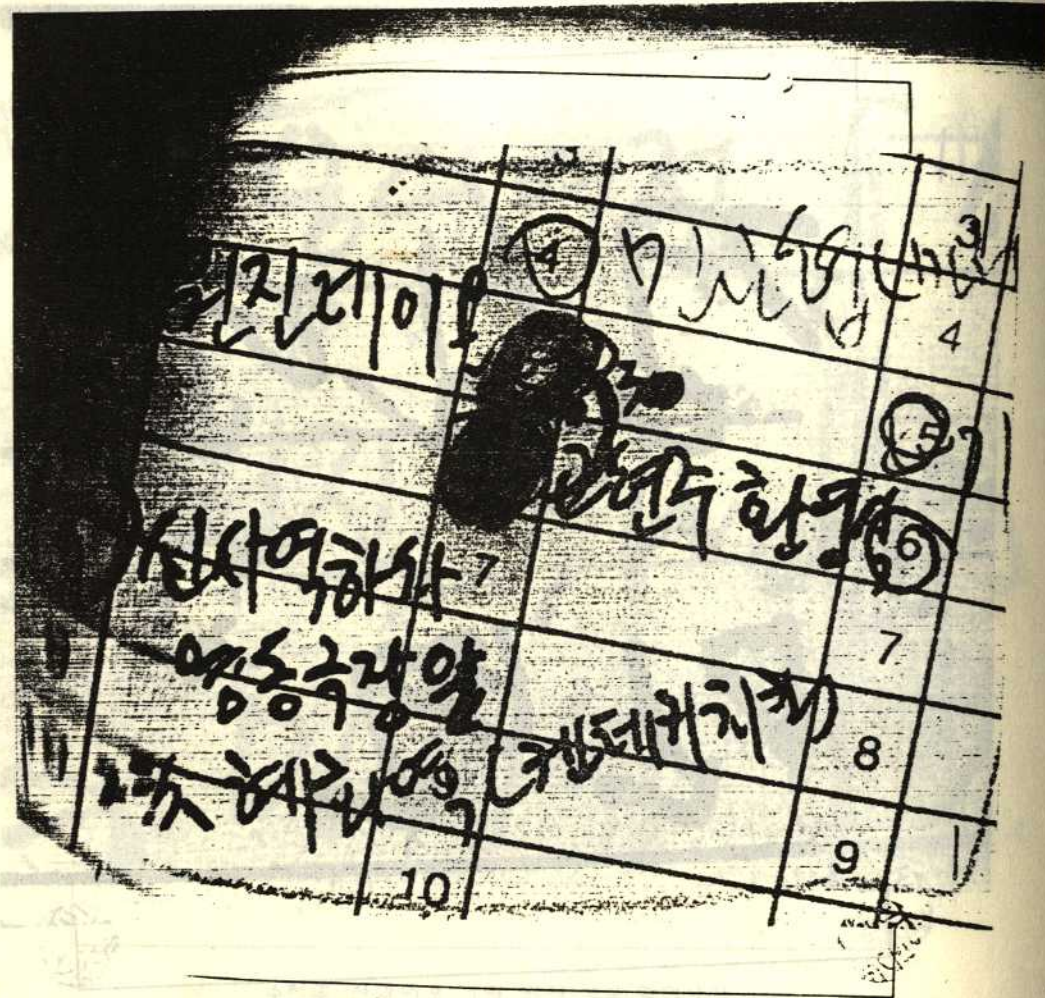


수첩의 전화번호 기입 필적 부분 확대사진.

성 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101-212  
502



1인련에서 김기설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필적 부분 확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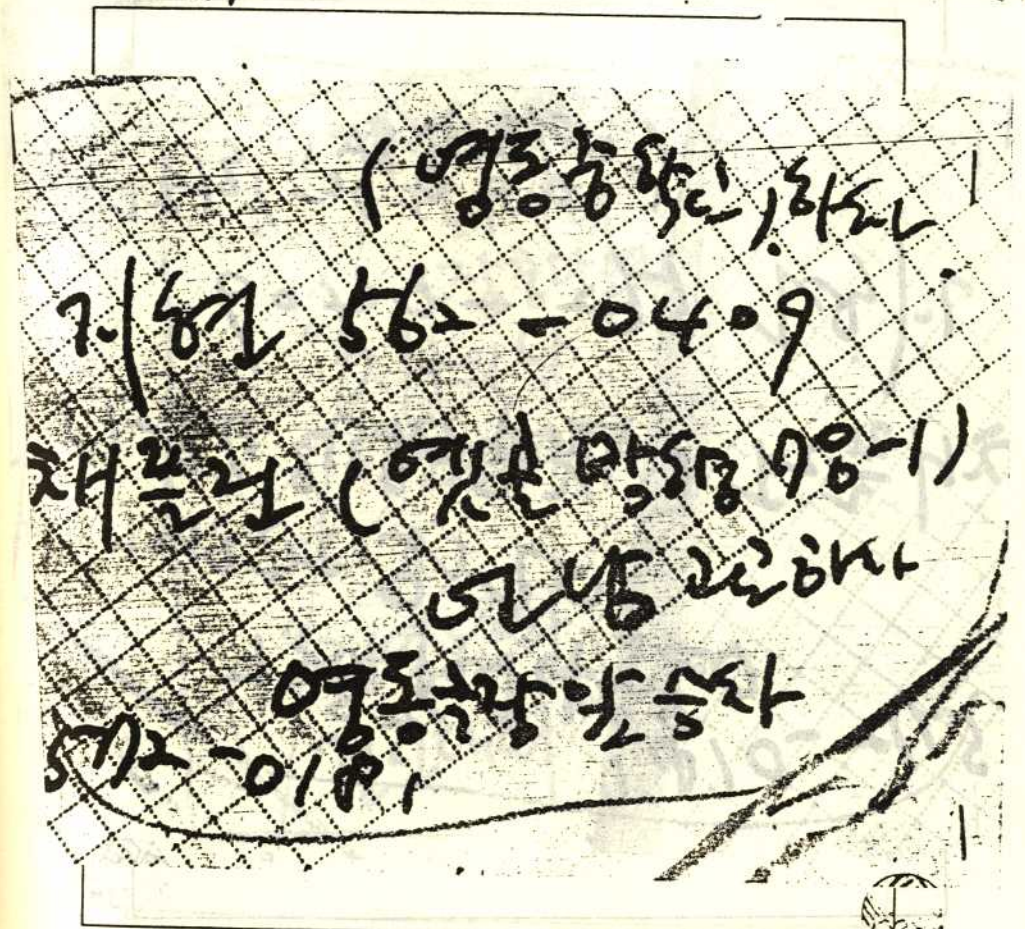
\_\_\_\_\_

\_\_\_\_\_

\_\_\_\_\_

국립과학수사연구소

583



전민련에서 김기설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필적 부분 확대사진.

\_\_\_\_\_

\_\_\_\_\_

\_\_\_\_\_

국립과학수사연구소

584

(사진제 14호)

(영동농항의) 하도나  
 7/8기 562-0409  
 차플러 (영동농항 98-1)  
 5기2-0191  
 영동항 앞 등대

전민련에서 김기설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필적 부분 확대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585

(사진제 15호)

"유거한 집" ('90)  
 김기설  
 (영동농항의)  
 "기사의 날  
 시민권대회"  
 ("권역노동자  
 전진대회")

전민련에서 김기설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필적 부분 확대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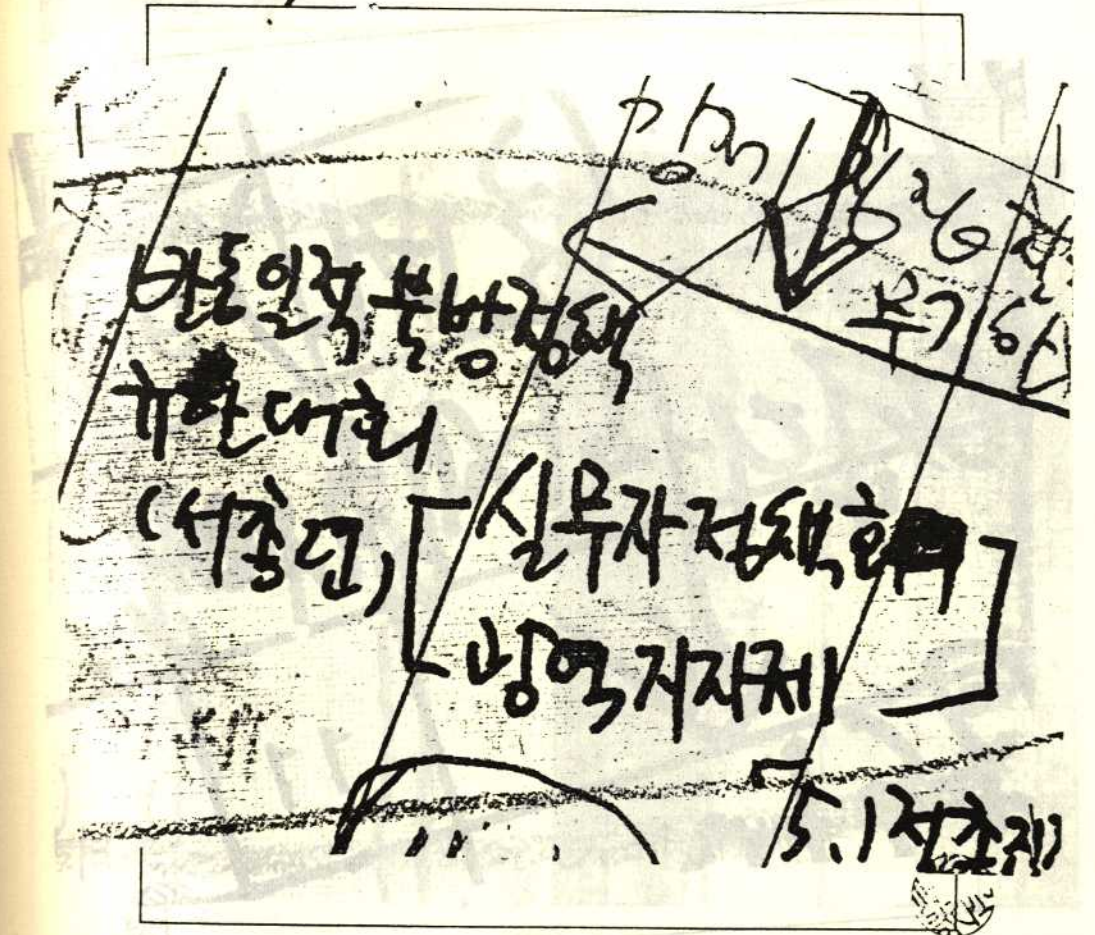
(사진제 16호)

	1	0
6	가사희견	6
7	(전노첩)	7
8	한겨레비밀첩	
9	(김비경 사)	

전민련에서 김기설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필적 부분 확대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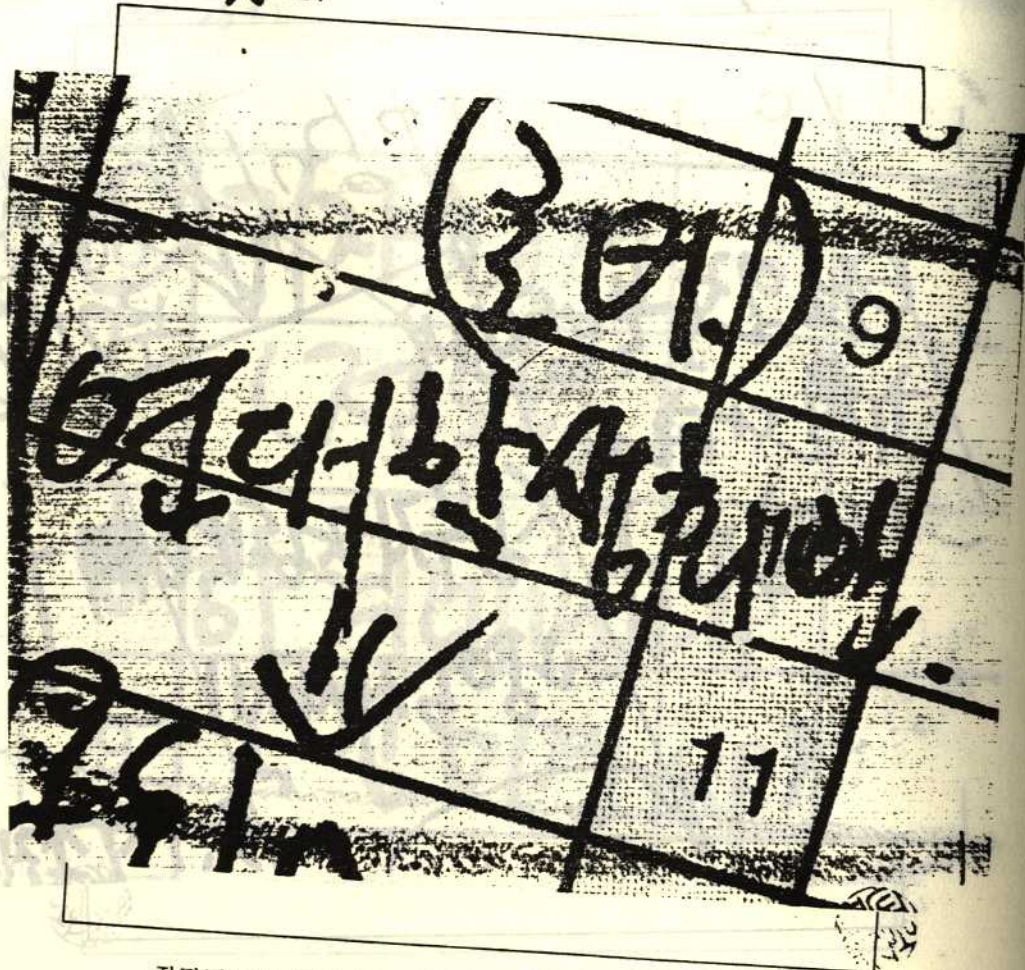
(사진제 17호)



전민련에서 김기설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필적 부분 확대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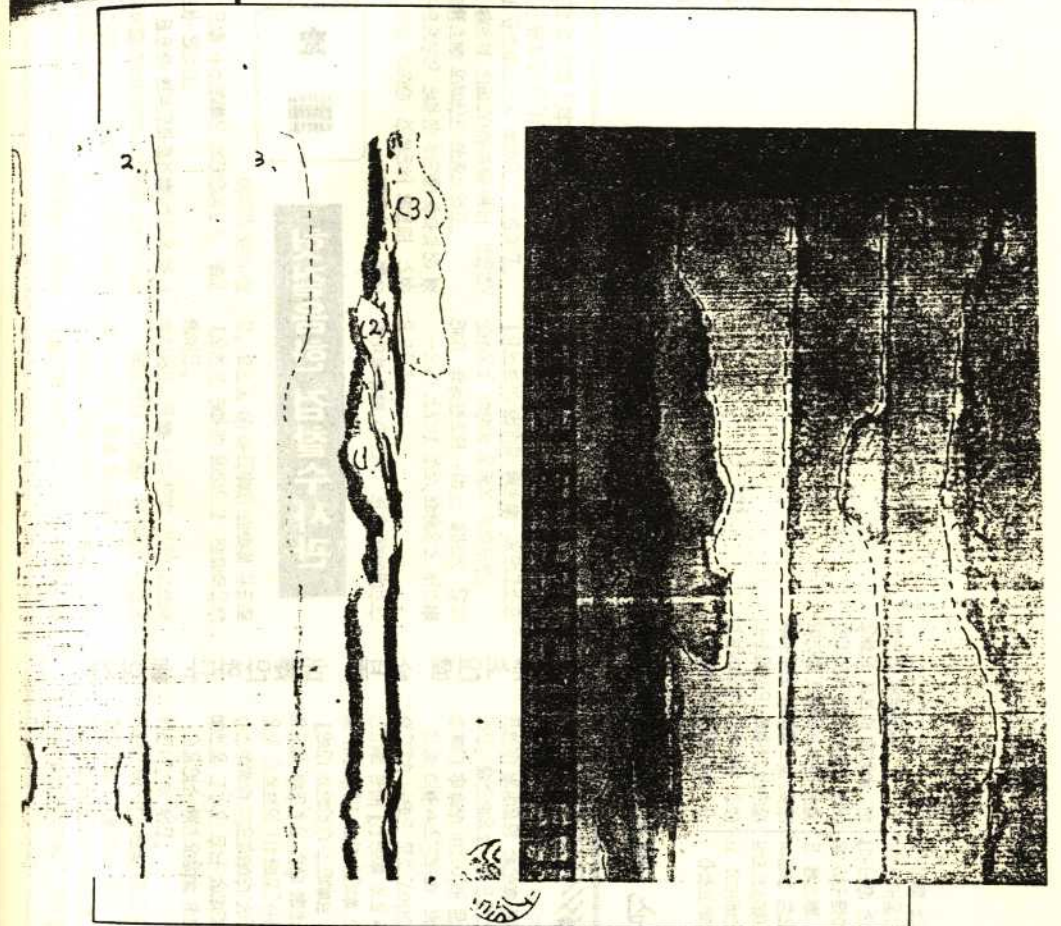
(사진계 18 호)



전민련에서 김기설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필적 부분 확대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부  
590

(사진계 19 호)



수첩 절취선 부분 확대사진.

수첩에 잔류된 (1), (2), (3) 과 절취된 전하  
번로기입부분 1, 2, 3 은 상호 정제되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부  
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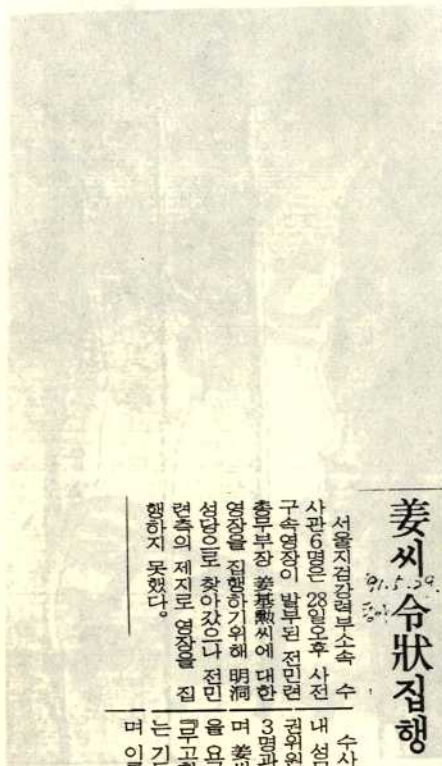


자료 가-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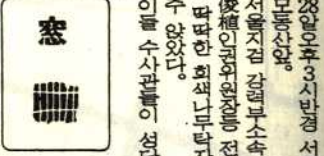
김수환 추기경님께

강기훈

자료 가-2-26 (동아, 91년 5월 29일)



1991. 5. 29. 동아



### 정제미원인 검찰수사관

정제미원인 수사관 40명... 「정제미원인 수사관 40명...」

정제미원인 수사관 40명... 「정제미원인 수사관 40명...」

정제미원인 수사관 40명... 「정제미원인 수사관 40명...」

### 꽃시연행 실패 舌戰만하다 돌아가

꽃시연행 실패... 「꽃시연행 실패...」

꽃시연행 실패... 「꽃시연행 실패...」

꽃시연행 실패... 「꽃시연행 실패...」

### 姜씨 卹狀 집행 실패 檢察

姜씨 卹狀 집행 실패... 「姜씨 卹狀 집행 실패...」

姜씨 卹狀 집행 실패... 「姜씨 卹狀 집행 실패...」

姜씨 卹狀 집행 실패... 「姜씨 卹狀 집행 실패...」

姜씨 卹狀 집행 실패... 「姜씨 卹狀 집행 실패...」

姜씨 卹狀 집행 실패... 「姜씨 卹狀 집행 실패...」

姜씨 卹狀 집행 실패... 「姜씨 卹狀 집행 실패...」

추기경님께 올립니다.

저는 지난 18일 고 김기철씨 유서에 필자라는 엄청난 죄목을 뒤집어쓰고 명동성당에서 12일째 지내고 있는 강기훈입니다. 먼저 2간 성당측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장소사용 등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카톨릭 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땅과 그속에서 살아왔으며 생명의 맥박을 물려온 민중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믿고 있으며, 물론 신앙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민주화운동을 해 왔습니다. 제가 이들을 추기경님께 띄우는 것은 벌써 10년이 넘게 신봉과 방황에 크게 보도되었던 '유서에 필 공방'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단호히 저의 고동을 호소하여 동정을 얻고자 함도 제 자신의 견해를 종교에 의지하여 위기를 모면하고자 함도 아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진실이었습니다. 한 인간이 멸하는 진실이 그로록 공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왜곡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2간 수사기관의 왜곡과 노련한 언론 조작에 대해서 진실 그 자체를 알리며 무언히 배를 써 왔습니다. 명백하게 저의 유서를 대필 하지도, 자살을 방조하지도 않았으며 그를 뒷바라지는 객관적이며 사실적인 증거들을 기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수사당국이 2간 상상해왔던 하나의 가상을 포기하고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소박한 인간들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거에 사용하면 수첩도 제가 조락했다. 방명록과 업무일지 등 고인이 생전에 남긴 글씨들도 제가 썼다. 저의 집에서 수많은 제 친필들을 압수해 가고서도 85년 경찰서에서 쓴 자술서가 고 김기철 동지가 쓴 유서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나왔다. 아마도 김기철이라는 가명으로 제가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등등 도저히 논리적으로도 않고 진실도 아닌 말들을 언론에 교묘히 흘려 한 인간을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악한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많은 국민들은 저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혹은 자살을 방조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론재판을 통해 힘을 얻은 수사당국은 '26살, 저를 자살사라는 혐의로 사천구속영장을 법원으로 부려 발부박아 저를 강제연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의 죽음을 슬퍼하고 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진정하지도 못한 저 범행수 소용돌이 속에 취할려 버린 것 같습니다.

소박한 생각에서라면 저의 누명을 벗기 위해 검찰의 조사에 당당히 응하는 것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만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수없이 행해져왔던 정치재단들의 선례나 지난 13일 변평되어 지금까지 '레방이' 요연한 홍성우씨는 강압민선수사를 받은 흔적이 너무 뚜렷합니다. 게다가 검찰이 저의 책이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을 때마다 성씨의 증언을 들어 사실과 다른 말들을 흘리고 있을 뿐더러 너무도 명백합니다. 성씨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며 저의 친구후배이고, 지나치리 만치 착하고 순진한 성격인 아이임을 생각하면 그가 수사당국에서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 머뭇머뭇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검찰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제3의 안정되고 공적인 장소에서라면 언제든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수차례 말해왔습니다.

제 가족들은 독실한 기독교의 신앙 아래 살아왔습니다. 조부님은 전복 삼계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며, 고모부와 외삼촌은 목사님 이십니다. 어려서부터 이러한 집안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한 인간이 저에게는 언제나 한 철학자의 뜻과 그에 순종하여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살아있으며 "그것이 지금까지 투옥과 연행 등에 중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벌의를 밀바람이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엄청난 위력을 믿고, 또는 직립히 언론의 성리를 활용하여 진실을 숨겨버리고 저와 저의 가족들을 귀찮한 지경에 몰아넣은 소위 '공권력'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넘어 적의 조라 갖게 되었습니다. 한 인간은 미워할 수 없어도 문장 날조된 거짓말로 제 가족을 파란리정에 몰아넣은 수사당국은 단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노한으로 편히 앉아서 저의 누워계시던 아버님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어머니는 사색이 되었으며, 법학을 전공하는 제 막내동생은 법관의 길은 포기하겠다고 학교에도 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사과정에서 틀어간 둘째동생도 공부에 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저를 조종이라도 알고 있거나 안전이 있는 친구들은 버려졌이 검찰이 변평하거나 집·작장으로 찾아와 성업에 리장을 주거나 반협박을 받은 상대에서 저를 보고음에도 찾아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2간 신앙공동체인 교회에서 저의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던 교우분들조차,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일신의 안전에 대한 걱정에 앞서 이러한 주변의 정황들이 저를 가장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상의적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유서에 필과 분신의 배후문제를 이제 저들은 사실처럼 만들어 이땅과 조국의 장래를 걱정하여 죽어간 동지의 빛조라

모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는 안되어 동양의 가족들을 슬픔으로 몰아넣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고귀한 생명까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박에 이용하는 일도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저는 신앙인은 아니지만, 어떤 시대나 역사적인 순간에도 진실의 증명을 밖에서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애이지만 신앙이라는 것도 바로 진실과 진리의 편에서 어떤 환상과 고독에서도 이를 굳게 믿으며 자기는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국에 위기에 처할때마다 카톨릭이 보여주었던 신념과 용기를 저는 깊은 존경과 믿음을 가지고 보아왔습니다...

너무 신세라형제의 사설을 늘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제 노력에는 추후의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늘 걱정하시는 추경성에게 이러한 증언을 물리는 것도 저의 진실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추이를 주의깊게 살펴달라는 뜻에서였습니다. 무례한 점이 보셨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민족의 정서적 지극히 서대될 것을 언제나 기원하겠습니다.

1991년 5월 29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강기훈 올림

91년 5월 30일

자료 가-2-27 (동아, 91년 5월 30일)

# “金씨수첩도 姜씨필적”

國科搜査院 遺失 査査書 大畧 本誌 同日

191.5.30.  
 金氏 수첩도姜씨 필적  
 國科搜査院 遺失 査査書 大畧 本誌 同日

전민원사회부장 金應高  
 씨 분신자살사건(91.5.28) 수사중  
 인 서울지검(91.5.28) 수사중  
 이후 전민원사 金씨의 수  
 첩이라며 제출한 수첩의 필  
 적도 전민원총무부장姜泰  
 勳씨의 필적과 같다고 구  
 립(91.5.28) 수사중  
 전민원사 金씨의 수첩의 필  
 적도 전민원총무부장姜泰  
 勳씨의 필적과 같다고 구  
 립(91.5.28) 수사중

이로 나타났다고  
 전민원사회부장 金應高  
 씨 분신자살사건(91.5.28) 수사중  
 인 서울지검(91.5.28) 수사중  
 이후 전민원사 金씨의 수  
 첩이라며 제출한 수첩의 필  
 적도 전민원총무부장姜泰  
 勳씨의 필적과 같다고 구  
 립(91.5.28) 수사중

이로 나타났다고  
 전민원사회부장 金應高  
 씨 분신자살사건(91.5.28) 수사중  
 인 서울지검(91.5.28) 수사중  
 이후 전민원사 金씨의 수  
 첩이라며 제출한 수첩의 필  
 적도 전민원총무부장姜泰  
 勳씨의 필적과 같다고 구  
 립(91.5.28) 수사중

자료 가-3-20

### 김기설 동지의 분신행거에 대한 노정권의 날조조작의 의도와 대응

#### 1. 상식 이하의 유서대필 날조조작

- '흰 것을 검은 것'이라 강변하며 어리석게도 정권의 생명을 건 노정권

고 김기설동지가 5월 8일 "노정권 퇴진"과 "민자당 해체"를 외치며 분신행거 산화하자마자, 현정권은 터무니없는 분신배후설과 상식 이하의 유서대필 날조조작으로 고 김기설동지와 연이은 열사들의 분신행거의 고귀한 뜻을 훼손시키고 백주대로의 폭력살인으로 명명백백히 드러난 자신들의 공안통치의 폭력적인 본질을 은폐하고자 혈안이 되어 왔다. 전민련은 이러한 현정권의 악의적인 조작기도에 대응하여 민족민주운동의 진실과 도덕성을 결코 당당하게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규명함으로써 현정권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현정권은 전민련이 제시한 각종 자료, 업무일지, 승의여전 메모, 성남터사랑청년회 방명록, 전교조 원주지부 방명록, 성남민청련 업무일지와 이력서, 강기훈 동지의 87년 옥중편지(마산교도소 김인과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음) 등에 대해 가짜라거나 조작되었다는 강변으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민련이 제출한 수첩과 유서의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자 이것마저 조작되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감정결과를 토대로 강기훈 동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고 있다.

우리는 이렇듯 권력을 믿고 '흰 것을 검은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현정권의 행위는 공권력을 남용하여 어처구니 없이 무고한 한 인간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극악한 범죄행위요, 제2의 한국판 드레퓌스사건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 이하의 유서대필조작을 계속하고 있는 현정권의 음모는 진실에 의해 그 의도가 백일하에 폭로될 것이며, 과거의 권인숙양 성고문사건과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사건에서와 같이 어리석게도 정권의 운명을 파탄시키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여기에서는 현정권의 계속되는 조작음모에 대응하여 그간 전민련에서 발표한 각종 성명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고 김기설 동지의 분신행거와 관련한 날조조작의 의도와 대응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2. 잇따른 분신행거의 원인과 파장

- 사람이 죽음보다도 더 싫어하는, 사람을 잡아 먹는 범보다도 더 무서운 폭정,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삶보다도 더 소중히 하는 가치

5월은 고 강경대군의 폭력살인 이후, 그간 노정권의 폭력적인 공안통치에 의한 탄압과 잇따른 분열로 침체와 난맥상을 면치 못했던 민족민주운동세력과 야당 등 범민주세력이 '범국민대회'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결집하여, 4.29, 5.1절, 5.4, 5.9, 5.11, 5.18, 5.25 제3차 국민대회에 이르기까지 연인원 약 2백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의 "노정권 퇴진", "공안통치 종식", "민주대개혁" 요구 '5월 대투쟁'을 이끌어냄으로써, 모

든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꺾일 수 없는 염원과 의지를 확인한, 그리하여 참된 민주정부수립의 희망을 다시금 보여준 달이었다. 그러나 또한 5월은 현정권의 폭력살인과 잇따른 분신행거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생명을 잃어가야만 했던 피로 물든 잔인한 달이었다.

노정권의 폭력시위진압으로 수많은 부상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명지대생 강경대군이 목숨을 잃었고,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의 옥중살인에 이어 성대생 김귀정양이 다시 꽃다운 젊은 목숨을 잃었고 광주의 권창수씨는 아직도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또한 박승희양의 분신에 이어, 김영균, 천세용, 김기설, 윤용하, 이정순, 정상순씨 등이 잇따라 분신 자신의 생명을 민족의 계단에 바쳤고, 고등학생 김철수군은 여전히 중태이다. 5월 한달동안 현정권의 살인적인 폭력과 그에 항거하는 분신 등으로 10명이 숨지고 2명이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 5월 한달동안 거의 2-3일 간격으로 젊은 목숨들이 생명을 잃었으니 이 어찌 잔인한 달이라 아니하겠는가? 실로 시위도중 부상사건이나 분신 비슷한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고, 망자들에게 열사란 칭호를 붙이기에도 면구스러운 계절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잇따른 젊은이들의 타살과 분신은 그만큼 험난한 우리 사회 민주화의 전도의 명과 암을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다.

이와같은 젊은이들의 잇따른 독재권력에 의한 타살사건과 분신행거는 산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그간 노정권의 공안통치에 의한 탄압속에서 무기력과 정치적 냉소주의에 빠져있던 국민들을 거대한 투쟁의 물결로 나서게 했으며, 명백한 백주대로의 폭력살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항의하는 국민적인 투쟁을 일과성의 시위로 축소하고 또다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만적인 조치로 적당히 넘어가려 하는 현정권에게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했다. 잇따른 타살과 분신행거, 그리고 수백만의 전국민적인 투쟁은, 세계와 국민을 상대로 현정권이 교묘한 사기술로 자신의 반민주적인 본질을 은폐해 왔던 것을 여지없이 폭로해 버린 것이다. 이는 현정권의 핵심부가 현재의 국민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안위는 그럭저럭 지킬 수 있다고 보면서도, 교사와 교수 등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함께 잇따른 분신이 증산층 등의 여론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통들의 확인에서도 드러난다.

그리하여 현정권은 김기설 동지가 분신하자마자 분신에 배후가 있다느니, 검사가 같이 유류품 중에서 라이터를 확인해 놓고도 분신현장에 분신현장에 인화물질이 없었다느니, 분신현장에 2-3명이 같이 있었다느니 하는 확인되지 않은 목적담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해 가면서, 열사들의 분신행거의 뜻을 먹칠하려고 광분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유서대필이라는 회대의 사기극을 연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현정권의 이러한 불순하고도 비뚤어진 발상과 음모는 잇따른 젊은이들의 죽음을 강요한 자신들의 책임과 죄악, 그리고 시국의 심각성을 전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젊은이들의 잇따른 분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던 김기설 동지의 분신이라는 충격적인 사태를 당하여, 이땅의 젊은이들과 국민들에게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고 암울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끊는 더 이상의 분신은 자제하기를, 그리고 끝까지 살아서 투쟁하자고 간곡히 호소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젊은이들의 잇따른 분신행거가 고 강경대군의 폭력살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고, 독재권력의 폭력통치에 의해 강요된 죽음으로서 사실상의 간접살인임을 분명히 밝혀왔다. 그리고 이러한 현정권의 회개할 줄 모르는 폭력통치는 강경대군을 죽게 한 그 잔인한 백골단에 의해 다시 김귀정양을 죽이는 사태를 불러왔다.

따라서 우리는 5월을 전후해 잇따라 발생한 현정권에 의한 타살사건과 분신행거에 의한 죽음 모두가 현 독재정권의 정권유지를 위한 소위 '공공안녕'(공안)을 빙자한 구조적인 국가폭력에 의해 강요된 죽음이라고 단정한다.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그리고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실현을 최고 이상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분신이 미화될 일은 결코 아니지만, 그 누가 합리적이고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자신의 주장과 진실을 호소하고자 하겠는가?

그리하여 일찍이 공자는 범에게 잡혀먹힌 남편의 산중의 무덤가에서 자신도 범에게 잡아먹힐 지 모르면서도 자기 나라의 폭정이 더 두려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슬피울고 있는 여인을 보고 "폭정은 사람을 잡아먹는 범보다도 무섭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맹자는 "사람이 삶을 좋아하지만 그 삶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 있으며, 또한 사람이 죽음을 싫어하지만 죽음보다도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이처럼 오늘의 젊은이들의 잇따른 분신은 '죽음보다도 더 싫은' 독재정권의 폭정에 항거하여 자신의 최고가치인 생명을 내던짐으로써, 역으로 단순한 동물적인 삶과 생명이 아닌, 아니 그 보다도 더 소중한 진정 인간다운 삶과 생명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결단과 투쟁을 호소한 것이다.

물론 반민주적인 군사독재권력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을 절벽으로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잇따른 분신하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데에는, 독재권력의 반민주적인 횡포와 폭정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분열과 이합집산 속에서 국민들에게 민주화의 희망을 힘있게 제시하지 못해 온 민족민주세력과 야당들에게도 정치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젊은이들의 잇따른 희생을 막는 길은 민족민주운동세력과 야당정치세력 등 모든 민주세력의 연합으로 이 땅에서 군사독재의 폭력통치를 끝장낼 수 있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데 있고, 오늘의 상황은 그를 위한 즉각적인 준비와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고 강경대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모든 민족민주운동세력과 야당 등의 민주세력이 총결집해 전국민의 '5월 대투쟁'을 이끌어낸 '범국민대책회의'를 그러한 성과와 요구에 걸맞도록 내실있게 꾸려내는 것과 또한 5월 투쟁과정과 범국민대책회의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민족민주운동의 책임성과 지도력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족민주운동의 조직적 준비를 단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3. 과연 분신에 배후는 있는가, 그리고 유서대필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 "형은 돈 몇억원을 주면 죽을 수 있습니까?"하고, 현정권의 악의적인 배후 날조조작에 죽음으로 항거한 윤용하 열사

현정권은 열사들의 이러한 죽음의 분신항거가 잇따르자, 특히 고 김기설 동지의 분신항거를 계기로 분신에 배후가 있다는 터무니없는 악의적인 날조선전으로 열사들의 분신항거의 뜻을 왜곡, 축소하고 개죽음을 만들기 위해 광분해 왔다. 그리고 현정권의 폭력살인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던 서강대 박홍 총장, 그리고 한때의 유명한 시인이라는 김지하 등 일부의 몰지각한 지식인들이 "죽음을 선행하는 세력이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현정권의 분신배후 조작에 맞장구를 치고 나왔다.

그러나 과연 분신에 배후는 있는가? 이러한 악의적인 조작에 대해서는 윤용하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한 바 있다. 윤열사는 분신 전날 대전에서 형과 이야기하면서 고 김기설 동지의 분신항거에 대한 현정권의 배후조작에 분개하여 "형은 돈 몇억원을 주면 죽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자신의 상식으로도 현정권의 억지주장임을 알 수 있다면서 분개했다고 한다. 그리고 유서에서도 "어느 누가 시킨다고 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는가"고 항변하였다.

결국은 근본적인 민주화조치는 취할 생각이 없이 분신배후 조작으로 사태를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 그리고 그에 동조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을 지칭하여 "죽음을 선행하는 세력이 있다", "환상을 좇는 죽음의 고향을 집어치워라"는 식으로 폭력통치하에서의 열사들의 분신항거의 뜻과

국민들의 민주화요구를 왜곡하고 공격한 몰지각한 지식인들의 발언이 또 한 사람의 젊은이를 죽인 것이다. 또한 이들이 소위 지주로 하고 있는 이른바 '생명사상'이라는 것이 전 우주적 사고라는 논리하에 현실의 모순을 은폐하고 이땅의 가장 큰 반생명세력인 독재정권의 살인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그 일단의 문명폐해에 대한 의미있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천적, 본질적으로는 전체주의와 독재를 합리화할 수 있는 위험한 '반생명적인' 사상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민족민주운동은 사실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헌신을 그 생명으로 하고 있다. 수없는 투옥과 체포, 심지어는 독재정권의 고문과 폭력에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민족민주운동이 강제에 의해서 성립되고 있다면, 그러한 운동은 권력의 한번의 탄압의 찬바람이나 타격에도 일거에 생명력을 잃고 소멸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물론 최근에는 입신출세를 위해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정신, 육체를 헌신하면서도 돈이나 명예, 권력보다는 고난의 가시밭길인 민주화운동이 어떻게 강제력으로 지속적인 생명력을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따라서 분신배후 운운하는 것은 민족민주운동을 음해하고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희석시키려는 악의에 찬 날조선전일 뿐이다. 이러한 독재자들의 발상은 아마도 5월 대투쟁에 나선 국민들도 모두가 몇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 움직이는 허수아비로 몰아부치는 행위이며, 또한 이는 현재의 군사독재세력들은 공수부대의 살인만행에 월기한 80년 광주민중항쟁에 대해서도 불순세력의 조종에 의한 폭동이라는 식으로 매도했던 태서도 드러난다.

현정권은 고 김기설동지의 분신 이후 배후설을 퍼뜨리고 배후를 수사한다고 법석을 떨면서도 10여일간 아무런 성과가 없자 이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과 홍성은양에 대한 불법강압수사를 근거로 김동지의 유서를 대필했다고 억지 조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민련에서는 무수한 방증자료를 통해 검찰의 유서대필조작의 허구성을 폭로하였고, 고 김동지에게는 정자체와 흘림체가 있음을 밝혀냈다. 그러나 현정권은 전민련에서 제출한 터사랑청년회방명록이나 전교조 원주지부 방명록 등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자료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으면서, 전민련에서 제출한 고 김동지의 수첩필체가 유서와 동일한 것이 드러나자 이제는 이것마저 조작되었고, 심지어는 강기훈 동지가 기자들 앞에서 써보인 글씨마저 조작한 것이라고 우겨대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조작해 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근거하여 유서와 수첩, 강기훈 동지의 85년 자술서 등이 동일필체이고 따라서 유서는 대필된 것이라고 계속 강변하면서 강기훈 동지에게 자살방조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현정권의 수첩조작 주장에 대해 전민련에서는 이미 고 김동지만이 알 수 있는 약속과 메모내용 등 수첩의 내용상으로 볼 때, 수첩이 고 김기설 동지의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수첩이 조작되었다면 누가 멍청하게 일부를 찢어내 의심을 받을 일을 했겠는가?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대로 고 김동지의 수첩에는 90년 5월 9일 이후 전민련 한상렬의장과의 약속과 전화 등 중요내용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우리는 현정권의 분신배후 조작음모에 대응하여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힌다는 입장에서 충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자료도 제출하여 왔다. 그러나 현정권이 이러한 모든 자료를 조작되었다고 상식 이하로 나오는 데는 그저 아연해지고 마치 저능아처럼 현정권의 지시에 따라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하는 검찰이 가련할 뿐이다. 만일 전민련이 제출한 모든 자료가 조작된 것이라면, 강기훈 동지는 홍길동과 같이 신출귀몰한 존재가 되고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수심명에 이르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다.

또한 현정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감정책임자와 감정의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내무부 치안본부 산하기구로서 전혀 공인된 기관도 아닐

뿐더러, 박종철군 고문살인사건이나 다른 시국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드러나듯이 정권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기관임은 일찍이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필적감정은 민사소송 사건에서도 감정기관마다 결과가 엇갈리는 사건이 빈발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분쟁의 소지때문에 최근에는 감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유독 김기설 동지의 유서와 관련된 필적감정에서는 그토록 신속하게 자신있게 감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허구적인 과학의 이름을 빙자한 현정권의 유서대필조작에 대하여 일반적인 상식으로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글쭙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유서에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닌데 죽음을 앞둔 사람이 유서를 대필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검찰의 주장대로 설사 분신을 공모했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한두번 받은 사람들도 아닌데 누가 유서를 대필한다는 말인가? 오히려 일부러라도 본인이 쓰게 했을 것이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현정권의 유서대필조작은 그들 스스로가 연출해 낸 희대의 코미디일 뿐더러, 논리적, 객관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는 상식 이하의 반인간적인 발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리고 현정권이 내세우는 '과학'이라는 것도 거짓을 은폐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4. 제2의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 현정권의 분신배후조작, 유서대필 날조조작의 의도와 대응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우화처럼, 현정권이 조작해도 진실이 현정권의 음모를 파탄시키고 말 것이다.

현정권의 터무니없는 유서대필 조작수사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동지는 단지 고 김기설 동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었다는 죄 아닌 죄로 아닌 밤중에 날벼락으로 구속될 위협에 처해 있다. 그리고 본인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현정권이 계속 조작해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무고하다면 몇몇하게 자진출두해서 수사를 받고 진실을 밝힐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그러나 고 김기설동지의 여자친구 홍성은양이 무려 96시간에 걸쳐 현재까지도 강압수사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전민련에서 스스로 제출한 수첩마저 조작되었다고 계속 상식 이하의 조작날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출두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그리고 현정권은 자신들의 온갖 고문과 강압수사로 무고한 사람까지도 언제든지 범죄자로 만들고 간첩으로까지 조작해 온 전력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본인의 다른 항변수단이 봉쇄된 상황에서는 현정권은 갖은 고문수사와 교묘한 언론조작으로 사건을 조작해 낼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적은 현정권과 검찰, 경찰의 정체를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전민련에서는 안정되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조사를 처음부터 제외해 왔으나, 현정권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현정권이 고 김기설동지의 분신배후 조작, 유서대필 조작수사를 통해서 노리는 의도는 분명하다. 첫째는, 유서대필조작 등을 통해 열사들의 분신행거의 뜻과 민족민주운동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현재 계속 확대되고 있는 '노정권 퇴진과 살인적 공안통치 종식, 민주대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인 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적인 구심형성을 지향하는 전민련과 나아가 범국민대책회의를 와해시키려는 데 있다. 또한 둘째로, 내각개편에서 드러난 공안총리의 재기용과 자신들의 미온적인 개혁조치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희석시키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정권의 이러한 유서대필 날조조작은 전민련이 제시한 각종 증거자료와 진실 앞에서 그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현정권은 어리석고 무모하게도 상식 이하의 유서대필 날조조작에 정권의

생명을 거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으나, 이러한 날조조작은 과거의 권인숙양 성고문 사건과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사건에서와 같이 정권의 운명을 파탄시키는 결과만을 만들고 말 것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이나 프랑스의 드레퓌스사건과 같이 국가권력을 악용한 사실의 조작과 은폐기도가 결국은 국민적인 저항과 진실의 힘 앞에서 정권의 멸망으로 귀결되었던 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제 현정권의 고 김기설 동지의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현정권과 민족민주운동세력간의 독재정권의 운명과 진실을 건 피할 수 없는 일전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히 현 독재정권과 민족민주운동세력간의 대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양심세력과 비양심세력간의 대결'로 확대되고 있다. 이 조작사건에 정권의 생명을 건 현정권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궁지에 몰리면 이 사건을 미궁에 빠뜨리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실이라는 가장 큰 무기가 있고, 또한 모든 양심세력의 후원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전 국민들의 힘이 있다! 진실을 무기로 현정권의 고 김기설 동지의 분신배후 조작, 유서대필 날조조작 음모를 분쇄하여 열사들의 죽음의 뜻을 살리고 진정 꿈에도 그리는, 건전한 상식이 통용되고 인간다운 삶의 희망이 넘치는 민주정부수립을 향한 우리의 거대한 장정을 기필코 승리로 장식하자!

1991년 5월 30일

전 국민족민주운동연합

91년 5월 31일

자료 가-1-92 (수사기록 591~59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2과  
金鍾振

국립과학수사연구소  
(688-2012)

이화사 23110-5805 1991. 5. 31.  
수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제목 감정의회보

- 1. 강력23110 - 013040 (91. 5. 23)과 관련됨.
- 2. 위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함.

첨부 : 감정서 1부. 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국과수연제 법의이23110- 호(강력23110-013040호)  
의뢰관서명 서울지방검찰청

- 1 증거물 : 증1호 : 혈액
- 2 감정사항 : 증1호의 혈액형 여부
- 3 시험 : "혈액형 검사"  
해리흡착법에 의해 증1호는 'O'형으로 반응함.
- 4 판정 : 증1호 혈액의 혈액형은 'O'으로 반응함.
- 5 비고 : 본 감정에 사용한 증거물과 잔량은 본 감정서 반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폐기처분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91년 5월 30일<sup>29)</sup>

29) 검찰청 도착은 5월 31일임.

자료 가-2-28 (동아, 91년 5월 31일)

# 姜씨등 20명 수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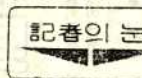
강시동 20명 수배·경찰부입 거부할 명분없다/명동성당·기자의 반/검찰의 분노와 업보(동아, 91.5.31.) 351

강시동 20명 수배·경찰부입 거부할 명분없다/명동성당·기자의 반/검찰의 분노와 업보(동아, 91.5.31.) 351

강시동 20명 수배·경찰부입 거부할 명분없다/명동성당·기자의 반/검찰의 분노와 업보(동아, 91.5.31.) 351

## 경찰부입 통보된 거부할 명분없다

명동성당 반핵  
진주교신학교 부교장  
강시동 20명 수배·경찰부입 거부할 명분없다/명동성당·기자의 반/검찰의 분노와 업보(동아, 91.5.31.) 351



### 진찰의 판거와 「業報」

본지 사설인 '金鍾振의 유서'와 '姜씨등 20명 수배'는 명동성당 반핵 진주교신학교 부교장 강시동 20명 수배·경찰부입 거부할 명분없다/명동성당·기자의 반/검찰의 분노와 업보(동아, 91.5.31.) 351

강시동 20명 수배·경찰부입 거부할 명분없다/명동성당·기자의 반/검찰의 분노와 업보(동아, 91.5.31.) 351

강시동 20명 수배·경찰부입 거부할 명분없다/명동성당·기자의 반/검찰의 분노와 업보(동아, 91.5.31.) 351

☐자료 가-2-29 (동아, 91년 5월 31일)

1991년 5월 31일 金曜日

# 社說

## 聖所로서의 명동성당

가톨릭교회는 인류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성당이라는 거룩한 공간을 세웠다. 성당은 신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다. 성당은 교회의 중심이자, 지역 사회의 중심이다.

명동성당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성당이다. 성당 앞에는 명동교회가 있다. 성당은 성서공부, 기도, 찬양, 말씀, 사랑의 집합회 등을 실시한다. 성당은 신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다. 성당은 교회의 중심이자, 지역 사회의 중심이다.

성당은 신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다. 성당은 교회의 중심이자, 지역 사회의 중심이다. 성당은 신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다. 성당은 교회의 중심이자, 지역 사회의 중심이다.

## 영장거부 검찰 불응 在野 강경노리

서울지검은 김기설씨 분신사건 경위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불응하여 영장거부 조치를 취했다. 이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 東亞日報

### 도덕성 입증위해 屍身 남겨주면 死因 규명 안 돼

서울지검은 김기설씨 분신사건 경위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불응하여 영장거부 조치를 취했다. 이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서울지검은 김기설씨 분신사건 경위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불응하여 영장거부 조치를 취했다. 이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자료 가-3-21

# 보도자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박광제)는 5월 30일 '김기설씨 분신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본회 소속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에 박형규목사, 위원으로 홍성우변호사, 박연철 변호사, 김찬국교수, 김동완목사, 조화순목사를 선정하였다. 본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목적은 검찰과 전민련의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양측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과 의혹의 매듭을 풀어 그 진위를 국민들에게 밝혀보고자 함이다.

본위원회는 5월 30일 김기설씨의 분신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던 범국민대책회의의 황인성, 최종진씨의 보고를 들었고 이어 6월 1일 오후 김씨 분신을 제일 먼저 접 보받은 서강대 박홍송장을 만난다.

아울러 5월 31일 서울지검에 김기설씨 분신사건경위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6월 1일 전민련측에 김기설씨 분신건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하여 진상조사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관계자들과 만난다.

본위원회의 진상조사과정에서 김기설씨에 대한 검찰과 전민련의 주장이 평행히 대립되어 해결되지 못할 경우 국외선고기관(WCC)에 필적감정의뢰를 할 예정이다.

※ 별첨 : 검찰에 보낸 협조요청공문 1부

1991년 5월 3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 권 위 원 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 권 위 원 회

110-470 서울시 중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8호  
전화 : 764-0203, 744-3717, FAX : 744-6189

인권위 제 91 - 11 호

1991. 5. 31.

수 신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참 조 : 강신욱 부장검사, 신상규검사

제 목 : 김기설씨 본신사건경위확인에 관한 협조요청건

본 위원회는 현재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아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크게 당하고 있는 김기설씨 본신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자 구성된 교회협 인권위 소속 '김기설씨본신사건진상조사위원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귀청을 방문하여 그 동안 귀청에서 조사한 결과 연계된 귀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청에서 보관중인 증거자료, 특히 김기설씨의 수첩원본과 귀청에서 이미 증거보전절차의 과정에서 실행하였다는 홍성은양의 진술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및 그의 귀청에서 강기훈씨가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 증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것은 어떠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다만 본 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불신과 본일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증잡을 수 없이 깊어져 가는 것을 막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충정에서입니다.

귀청의 회신을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 권 위 원 회  
위 원 장 박



◎ 91년 6월 1일 ◎

□자료 가-3-22

## 보 도 자 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박광재)는 5월 30일 '김기설씨본신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본회 소속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에 박형규목사, 위원으로 홍성우변호사, 박연철 변호사, 김찬국교수, 김동완목사, 조화순목사를 선정하였다. 본 진상조사위의 활동목적은 검찰과 전민련의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양측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과 의혹의 매듭을 풀어 그 진위를 국민들에게 밝혀보고자 함이다.

본위원회는 5월 30일 김기설씨의 본신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던 범국민대책회의의 황인성, 최종진씨의 보고를 들었고 이어 6월 1일 오후 김씨 본신을 제일 먼저 제보받은 서강대 박홍총장을 만난다.

아울러 5월 31일 서울지점에 김기설씨 본신사건경위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6월 1일 전민련측에 김기설씨 본신건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하여 진상조사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관계자들과 만난다.

본위원회의 진상조사과정에서 김씨필적에 대한 검찰과 전민련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되어 해결되지 못할 경우 국외선교기관(WCC)에 필적감정의뢰를 할 예정이다.

\*\* 별 첨 : 검찰에 보낸 협조요청공문 1부  
전민련에 보낸

1991년 6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 권 위 원 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 권 위 원 회

11111이-1477이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8호  
전화: 764-0203, 744-3717, FAX: 744-6189

인권위 제 91 - 12 호

1991. 6. 1.

수 신 : 전민련 인권위원장

참 조 :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 등

제 목 : 김기설씨 분신사건경위확인에 관한 협조요청의 건

본 위원회는 현재까지 그 진상이 확연히 밝혀지지 않아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김기설씨 분신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공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구성된 교회협 인권위원회 소속 '김기설씨분신사건진상조사위원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귀 위원회를 명동성당으로 방문하여, 관계자를 면담하고 자료를 전달받기를 희망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특히 필요로 하는 진술 및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91. 5. 5부터 1991. 5. 8까지의 김기설씨의 행적에 관한 증언, 김기설씨와 1991. 5. 6. 18:00부터 5. 7. 20:00까지 함께 있었다는 방송통신대학생의 진술.  
 ✓ 김기설씨가 1991.5.6. 오후 원전레이온직업병규탄대회에 다녀온 사실의 입증  
 김기설씨의 본신의사를 알고 난 이후의 전민련 집행부의 조치 (가)  
 김기설씨와 1991.5.7. 자정무렵부터 5.8. 05:30경까지 함께 있었다는 임근재, 이도래의 진술. 임근재, 이도래가 김기설씨를 놓치고 난 이후의 추적상황.  
 김기설씨가 운동권내부에서 악점을 잡힌 바 있어 본인의 희생물이 되었다는 추측기사의 근거가 될만한 사항은 없었는지 여부. (가) (가)
2. 강기훈씨의 199.5.5부터 5.8.까지의 행적.  
 강기훈씨 본인이 작성해 둔 자술서.  
 강기훈씨의 자술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증인의 증언 또는 물적 증거.
3. 김기설씨의 수첩에 관하여.  
 홍성은앙이 김기설씨의 수첩을 전민련으로 가져온 시각, 수첩을 전달받은 사람(전달과정), 수첩의 활용방법. 수첩의 보관과 다시 찾게 된 과정. 수첩중에서 4장이 찢어진 이유. 4장중 3장만 남아 있는 이유(이에 대해 상당한 의혹이 일어나고 있음). 김기설씨가 소지하였던 전민련 수첩이 배포된 시기.
4. 강기훈씨가 소지하는 전민련 수첩 (가)

강기훈씨는 수첩을 휴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강기훈씨가 수첩을 휴대하지 않은 이유(전민련 총무부장이 전민련 수첩을 휴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의혹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음). (가)

5. 김기설씨가 남긴 필적으로서 수집되어 있는 자료 원본 (가)  
 김기설씨의 친필임을 확인할 방법  
 김기설씨의 유서사본. 김기설씨가 승의여전총학회장에게 전했다는 메모.  
 김기설씨의 필체가 들어 있다는 서류봉투. 김기설씨가 서명한 방명록.  
 전민련 업무일지. 기타. (가)
6. 강기훈씨의 필체를 알 수 있는 증거자료  
 교도관에 의해 점열된 옥중서신. 그의 일기장, 대학노트 등.

본 위원회에서 귀 연합에 이상과 같은 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평소 귀 연합의 활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왔던 바 귀 연합활동의 진실성 자체를 국민앞에서 검증받음으로써 귀 연합의 향후의 활동에 더욱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입니다. 본 위원회의 주문에 응하는 것이 번거롭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위원들이 귀 연합의 관계자와 만나 가장 효율적으로 진상을 청취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여 주시고 귀 연합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 권 위 원 회  
위원장 박 광 제

김기설씨분신사건진상  
조사위  
위원장 박



91년 6월 5일

자료 가-2-30 (동아, 91년 6월 5일)

# 在野-운동권 무더기 事前令狀

檢察 全大協의장등 6명 검거나서

## 全教組위원장등 추가할듯

### 대책회의관계자·大學 학생회장 포함

#### 地方勞使분규 시위자도 대거拘束

【서울 5일 특파원 보도】 서울지방검찰청이 4일 오후 4시에 서울역에서 열린 전국노동조합총연맹(전노총)의 '91년 6월 5일 서울역 시위'에 참가한 분규 노동조합원 100여 명을 대거 검거했다. 서울지방검찰청 제1부 검찰관 김문기(49)는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서울역 1번 출구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한 분규 노동조합원 100여 명을 대거 검거했다. 김 문기 검찰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서울역 1번 출구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한 분규 노동조합원 100여 명을 대거 검거했다. 김 문기 검찰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서울역 1번 출구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한 분규 노동조합원 100여 명을 대거 검거했다.

【서울 5일 특파원 보도】 서울지방검찰청이 4일 오후 4시에 서울역에서 열린 전국노동조합총연맹(전노총)의 '91년 6월 5일 서울역 시위'에 참가한 분규 노동조합원 100여 명을 대거 검거했다. 서울지방검찰청 제1부 검찰관 김문기(49)는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서울역 1번 출구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한 분규 노동조합원 100여 명을 대거 검거했다. 김 문기 검찰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서울역 1번 출구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한 분규 노동조합원 100여 명을 대거 검거했다.



15명... 16명... 17명... 18명... 19명... 20명... 21명... 22명... 23명... 24명... 25명... 26명... 27명... 28명... 29명... 30명... 31명... 32명... 33명... 34명... 35명... 36명... 37명... 38명... 39명... 40명... 41명... 42명... 43명... 44명... 45명... 46명... 47명... 48명... 49명... 50명... 51명... 52명... 53명... 54명... 55명... 56명... 57명... 58명... 59명... 60명... 61명... 62명... 63명... 64명... 65명... 66명... 67명... 68명... 69명... 70명... 71명... 72명... 73명... 74명... 75명... 76명... 77명... 78명... 79명... 80명... 81명... 82명... 83명... 84명... 85명... 86명... 87명... 88명... 89명... 90명... 91명... 92명... 93명... 94명... 95명... 96명... 97명... 98명... 99명... 100명...

91년 6월 7일

자료 가-1-93 (수사기록 593~595)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송명석 검사  
제목 수사보고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 보고합니다.

1. 하명사항  
경기도 [ ] 거주 이보은 당23세(李保垠) 를 참고인 출석요구서 제시 후 임의동행할 것.

2. 수사사항  
이보은 당23세 동행코저, 위 주소지 관할 경기 성남시 태평2동 사무소에 임하여 주민등록 등재여부 등 확인한 바, 위 주소지에 아버지인 이해학 당 46세(목사 450305-1167815) 등 가족 4명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성남시청 옆에 위치한 위 주소지에 입한 바, 동소는 주택이 아닌 '주민교회'란 장로교회로, 동녀 소재 여부 확인코저 교회내 동녀의 여동생인 이보라 당22세 접견하여 동녀 거부 여부 문의한 바, 동 교회 내부에 있는 사택에서 가족 등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지난 약 일주일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연락 또한 없었으므로 알 수 없다는 언동 등으로 동녀 소재 발견치 못하여 동행치 못하였음을 수사보고 합니다.

\*첨 부 : 이보은 개인별 주민등록표 사본 1부 끝.

1991. 6. 7.  
검찰주사보 박도용

\*주민등록표 <생략> (수사기록 594~595)

91년 6월 8일

자료 가-2-32 (동아, 91년 6월 8일)

【第3種郵便物(가) 認可可】

91.6.8 동아

# 姜씨 은신 명동성당 내주초에 경찰투입

檢察방침

경찰이 은신처를 찾지 못해  
내주초에 경찰투입  
강씨 은신 명동성당  
내주초에 경찰투입  
강씨 은신 명동성당  
내주초에 경찰투입

자료 가-2-31 (동아, 91년 6월 7일)

91.6.7 동아

# 시위주도 在野 88명 檢舉令

### 治安본부 市道경찰국별로 전담반 편성

경찰이 은신처를 찾지 못해  
내주초에 경찰투입  
강씨 은신 명동성당  
내주초에 경찰투입  
강씨 은신 명동성당  
내주초에 경찰투입

경찰이 은신처를 찾지 못해  
내주초에 경찰투입  
강씨 은신 명동성당  
내주초에 경찰투입  
강씨 은신 명동성당  
내주초에 경찰투입

91년 6월 9일

자료 가-2-33

91. 6. 9. 동아

「대체회의」本部 이전 투쟁방향 고심

明洞 떠나면 갈다 마땅치 않아

지난달 18일 姜慶大의 서울 시내 노제를 계기로 연세대의 明洞 이전은... 明洞 이전을 둘러싼... 明洞 이전을 둘러싼...

金양해검... 聖堂고수 명분 퇴색 漢陽大 거론... 학교측 반발 불둔

또 검찰과 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金陽海檢은 聖堂고수 명분 퇴색... 漢陽大 거론... 학교측 반발 불둔...

법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회의는 최근 「明洞... 聖堂고수 명분 퇴색... 漢陽大 거론... 학교측 반발 불둔...

자료 가-3-23

면담 요청서

수신: 김수환 추기경님
발신: 서준식 (전민연 인권위원회 위원장)
제목: 추기경님 면담 요청의 건

존경하는 추기경님.

지난 5월 18일부터 시작된 이른바 김기철씨 분신 배후 및 용서 재판 수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당국이 거대한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구조하여 온 부당한 여권 재판의 분장을 추기경님께서는 이미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극히 정치적인 사건으로서, 이것은 <진실과 허위>, <양심과 비양심>의 커다란 대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검찰이 한층 더 놓은 <전민연 대 검찰>이라는 대립구도에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휘말려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善美熱을 비롯한 저희는 검찰의 부당한 여권 재판에 맞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외로운 노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괴물과도 같은 국가 권력 앞에서 저희 몇몇 사람의 몸뚱이 양심의 힘이 그 얼마나 무력할 수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끼지 않은 수가 없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려니 저희의 노력은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명종성람 측의 구선에 의한 "제3의 안정된 장소에서의 조사 제안도 무위로 돌아갔고, 이 사건의 열매를 쥐고 있는 洪盛호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발언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까지의 노력을 얼마 동안만 더 꾸준히 계속한다면 진실과 양심이 끝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될리라는 한가닥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아침, 신문은 통해 정부가 명종성람에 경찰력을 들여 보내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에 접하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려란 善美熱이, 그리고 몇몇 사람이 강요살이를 하게 될 지로 모른다는 우려이기 보다는, 그 동안의 일방적인 언론공세로 인하여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공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에 따르던 한차례의 언론공세의 과정에서 진실이 큰 바닷물의 물거품처럼 허약하게 사라져 버린 지로 모른다는 우려에 다름이 아닙니다.



# 대책회의의 明洞성당서 철수키로

12.15일 부속원지부  
 「대책회의」의 부속원지부는 12.15일 부속원지부에서 대책회의의 철수키로 결정했다. 부속원지부에서는 대책회의의 철수키로 결정했다. 부속원지부에서는 대책회의의 철수키로 결정했다.

【第

「대책회의」의 부속원지부에서는 12.15일 부속원지부에서 대책회의의 철수키로 결정했다. 부속원지부에서는 대책회의의 철수키로 결정했다. 부속원지부에서는 대책회의의 철수키로 결정했다.



## 「대책회의」의 「대책회의」

「대책회의」의 부속원지부에서는 12.15일 부속원지부에서 대책회의의 철수키로 결정했다. 부속원지부에서는 대책회의의 철수키로 결정했다. 부속원지부에서는 대책회의의 철수키로 결정했다.

### 明洞성당 철수 앞두고 고민

「대책회의」의 부속원지부에서는 12.15일 부속원지부에서 대책회의의 철수키로 결정했다. 부속원지부에서는 대책회의의 철수키로 결정했다. 부속원지부에서는 대책회의의 철수키로 결정했다.

【第

【21】

第21500號 ☆서예版☆

第3種郵便物(가) 認可【

# 「대책회의」 聖堂철수 어떻게 하나

「대책회의」의 부속원지부에서는 12.15일 부속원지부에서 대책회의의 철수키로 결정했다. 부속원지부에서는 대책회의의 철수키로 결정했다. 부속원지부에서는 대책회의의 철수키로 결정했다.

## 수백자는 「잠적」 방침 결정한다

## 金양장례기념 이틀 D 평이러

「대책회의」의 부속원지부에서는 12.15일 부속원지부에서 대책회의의 철수키로 결정했다. 부속원지부에서는 대책회의의 철수키로 결정했다. 부속원지부에서는 대책회의의 철수키로 결정했다.

本堂 聖堂 聖堂 聖堂

■자료 가-3-24

## ‘고 김기설씨 유서공방사건’의 공정한 공개수사를 촉구하며

**1** 우리는 최근 정부당국이 수배자검거를 이유로 명동성당에 대한 공권력투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하면서 심한 불쾌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이는 하느님성전에 대한 모독이며 신앙의 기본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교회공동체에 대한 우롱이기 때문입니다. 약자와 억눌린 자의 보호자이신 하느님의 성전은 옛부터 박해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왔습니다. 거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피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교회의 임무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가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성전을 더럽힌다면, 우리는 신앙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강경대군의 죽음 이후 공안통치종식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국무총리 교체 등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자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 교체 이후에 발생한 김귀정 양의 죽음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더구나 정부는 의대에서의 정원식 총리서리에 대한 봉변사건을 의도적으로 과장·확대 해석 선전하면서 이를 계기로 문익환 목사 재수감과 대책회의 관계자 80여명에 대한 수배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명동성당에 공권력 투입을 고려하겠다, 또는 공권력투입을 자제하겠다는 등의 잇단 위협과 유화적 발언은 공포와 분열을 조성하는 공안통치의 속성 바로 그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아무런 통제나 제한을 받지 않는 세력처럼 생각하여서는 아니되며, 도리어 올바른 지성에 따라 명령할 권한만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은 도덕적 질서에 의무를 부가할 수 있는 힘을 획득하여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지상의 평화 36) 라는 요한 23세의 선언을 우리는 함께 상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수호를 위해 경찰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몇 달전 6공 최대비리라는 수서사건 조사과정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기피했다는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말하는 공권력과 법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공권력과 법은 도덕성과 인권수호의 기초위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과감한 민주조치 단행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2** 검찰은 고 김기설씨의 유서대필 혐의를 받고 수배중인 강기훈씨의 혐계가 공권력 투입의 불가피한 이유중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자살방조 내지 배후조종 공방의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진실과 허위가 국민앞에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검찰은 김기설씨가 분신한 직후부터 본인의 배후가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을 유도한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강기훈씨의 억울한 누명과 그가 당한 그 엄청난 상처와 인권침해는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 지리한 공방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우리 자체의 조사와 변호사들과 타단체의 조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의 주장은 다분히 조작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상당부분 홍성은 양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밀실수사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홍성은양의 공개증언과 강기훈씨의 주장대로 제3의 장소에서의 공개수사가 사건을 푸는 합리적인 열쇠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난날 검찰이 부천서 성고문사건과 박종철군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스스로 도덕성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사건의 조작, 은폐, 축소 등 용서받을 수 없는 검찰의 수치와 잘못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기훈씨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가운데 온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공개수사를 제안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사제단이 중재, 입회할 용의가 있으며 검찰이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보증한다면 우리는 변호인과 함께 강기훈씨를 설득시켜 검찰의 공개수사에 응할 뜻이 있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우리의 제의를 주저없이 수락하리라 확신합니다. 이것만이 검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검찰의 명예를 되찾는 길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가리워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젊은이의 죽음을 부른 오늘의 현실앞에 고민하며 현실을 개선하고 참 민주화, 인간화를 꽃피우기 위해 기도하고 투신할 것을 하느님과 국민들앞에 다짐합니다.

1991. 6. 11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91년 6월 12일

91년 6월 13일

자료 가-2-37 (등아, 91년 6월 12일)

자료 가-1-94 (수사기록 596~599)

명동성당과 이보령의 만남

전민련이보령지역... 명동성당과 이보령의 만남... 이보령은 10~20명 정도의...

이보령은 10~20명 정도의... 명동성당과 이보령의 만남... 이보령은 10~20명 정도의...

추기경에 편지... 15일 전 명동성당... 명동성당에서... 추기경에 편지... 15일 전 명동성당...

檢察「대필」주장 조작... 姜씨 공개 수사 촉구... 전주교正義사제단... 姜씨 공개 수사 촉구... 전주교正義사제단...

진술서

본적 경북 주소 서울시 성명 이보령 (한자) 李寶寧 학교 승의여자전문대학교 총학생회장

고 하면 자기와 통화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서로 같이 전민련 사무실을 나왔다. 메모지 보관은 내가 했었고 학생회실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집회장소는 가지 않았고 학생회 뿐만 아니라 학생간부들 모두 학교상황이 여의치 않아 반대했다.

서준식, 김기철, 강기훈을 언제 만났는가? 서준식씨와 김기철씨는 4월 18일 기독교회관에서 만났고 강기훈씨는 기자회견(5월 21일) 때 처음 봤음.

김기철씨 분신 이후 5월 20일 전민련이라며 승의신문사에 연락이 와 편집장(김지연)에게 혹시 원고를 청탁한 것 없느냐 91년 신문에 김기철 원고가 실린 것 같다고 연락이 와 신문사에는 없었고 내가 가지고 있던 메모를 얘기해 만나자 하여 명성에서 서준식씨, 이동진씨를 만났다. 기철이형에게 받은 메모를 기자회견 때 얘기해 달라 하여 21일 2시 기자회견에 갔다. 처음 강기훈씨를 보았다. 기자회견 후 원본은 서준식씨에게 주었다.

4월 18일 오후 6시에 기독교회관에서 동문문제에 관한 예배가 있으니 타학교까지 좀 연락해서 같은 전문대 차원으로 와 달라는 얘기를 듣고 6시 10분-15분 쯤 나, 수미, 수진 세 사람이 갔다.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때 기철이형이 상자를 주면서 모금 좀 해달라고 해서 모금을 하고 예배가 모두 끝난 8시쯤 서준식씨, 김기철씨, 나, 수미, 수진 이렇게 다섯 사람이 지하 귀빈다방으로 내려 갔다. 커피를 마시면서 얼마가 걸린 지 알기 위해 모금함에 돈을 꺼내 서준식씨랑 모두 세어 봤더니 38,600원 금액이라 얼마 안되는 사람들에게 모금을 했는데도 꽤 많이 거둔 것 같더라 서로 웃고 서준식씨가 "내가 동우에 돈을 30만원 꺾었다. 그러니 이건 내 돈이다"라며 농담을 하면서 기철이형에게 액수를 적으라 했다. 그래서 기철이 형은 주머니에서 수첩과 볼펜(?) 꺼내 적고 우리 총학실 직통전화 번호를 적었다. 서준식씨와 기철이형과 우리 셋만 전민련 사무실도 구경할 겸 기철이형과 우리 셋만 전민련 사무실로 걸어서 갔다. 전민련 사무실로 가서 우리는 왔다갔다 했고 그곳에는 남자 2, 여자 1명이 있었다. 기철이형에게 적어달라고 말해서 기철이형은 책상 위에 있는 흰 백지 종이에다 우리 셋이 보는 자리에서 써주며 일정이 확실하지 않더라 가안이라고도 써줬다. 그러면서 문의사항이나 얘기하고 싶은 말은 전화를 해서 김기철이

이 모든 사항은 끝. 1991. 6. 13. 이보령

자료 가-1-95 (수사기록 600~602)

진술서 (2회)

성명: 이보령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앞서 진술을 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시 진술하겠습니다.

1. 5월 20일 김지연 편집장에게 연락이 와서 오후 4시 이후에 확보사로 갔다.

전민련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며 다시 전화가 오면 같이 나와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원본을 가지고 교내 복사가게로 가서 그날따라 학생들이 줄